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문 학 전 공

김 선 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정숙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Novel  
of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김선욱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정숙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Novel  
of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김선욱

김선욱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전공

김 선 욱

본 논문은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나는 현실인식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해방기 지식인소설이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창작된, 지식인 주인공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소설을 말한다. 또한 현실인식이란 실제 현실에 대한 작가적 이해의 결과물로 소설 내에서 작가적 굴절이 이루어진 현실 모습을 말한다. 지식인소설은 해방기에 대한 현실인식이 가장 잘 나타난 소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인소설은 자기체험의 형상화라는 특징을 지니는 점에서 지식인 주인공과 소설 창작의 주체인 작가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 해당하는 2장에서는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개별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방기의 소설적 형상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하는 세 가지 관점은 해방기를 역사성, 정치성, 일상성에서 이해하려는 분석 방법이다. 해방기를 식민지시대와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의 작품들을 역사적 관점을 지닌 소설로, 해방기를 이데올로기 대립 공간으로 보는 작품들을 정치적 관점의 소설로, 해방기 지식인들의 일상적 활동에 주목하는 작품들을 일상적 관점의 소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분류한 각각의 소설 유형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인식의 모습들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양상에 주목하여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역사적 관점의 지식인소설에서는 지식인의 참여와 반성의 갈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정치적 관점의 소설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두드러졌는데, 몇몇 작품들은 이데올로기가 가진 한계를 벗어난 사회통합 방법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상적 관점의 소설에서는 해방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 해방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해방기를 직접 경험하며 느낀 좌절 간의 갈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지식인 주인공의 눈을 통하여 해방기 현실인식 과정을 살피는 작업은 해방기를 그리는 소설들의 현실인식의 전체적인 지도를 완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어】 해방기, 현실인식, 지식인소설, 역사성, 정치성, 일상성, 참여, 반성, 이데올로기, 기대, 좌절



#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1. 연구의 목적 .....                         | 1  |
| 2. 연구사 검토 .....                         | 2  |
| 3. 연구 방법론 .....                         | 11 |
| 제 2 장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 형상화 양상 .....    | 15 |
| 1. 식민지시대를 통한 해방기 현실 이해 .....            | 15 |
| 2. 지식인 정치참여 과정 형상화 .....                | 26 |
| 3. 일상적 차원의 해방기 삶 체험 .....               | 40 |
| 제 3 장 지식인 주인공의 갈등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인식 ..... | 55 |
| 1. 반성과 참여 의식 .....                      | 55 |
| 2. 좌우 이념 선택과 탈이념 모색 .....               | 61 |
| 3. 이상적 해방에 대한 기대와 좌절 .....              | 66 |
| 제 4 장 결론 .....                          | 74 |
| 【참고문헌】 .....                            | 77 |
| ABSTRACT .....                          | 82 |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되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이 36년간 그토록 고대했던 해방은 그 시작부터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한 것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염상섭은 “길에서 주슨 돈은 몸에 안 붙듯이 공짜로 얻은 해방”<sup>1)</sup>이라고 우리 민족이 느낀 해방의 모습을 표현했다.

‘공짜로 얻은 해방’의 한계는 미·소 강대국의 개입으로 이어졌고 결국 해방기는 한국전쟁을 통한 분단국가로의 이행 과정이라는 민족 아픔의 단초가 되는 시대가되었다.

그렇다면 문학사적입장에서 해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방 시대의 문학은 식민지시대 문학의 청산과 분단시대의 문학의 시작이라는 중간 위치에서 이 둘을 잇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평사적으로 해방기는 큰 의미를 갖는데, 해방 당시 좌우 양진영간의 계급문학과 순수문학에 대한 첨예한 논의의 내용들은 현대 비평사의 원류가 되기 때문이다.

해방기 소설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해금조치 이후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초기의 논의들은 해방기 전체를 조망하는 과정에서 해방운동사와 문학이론 등 비평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방식이 선행된 이유는 해방기는 소설 작품 자체의 미학적 가치보다 문학론, 운동사적 차원의 활동이 더 두드러지는 시기라는 평가가 전제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평가가 전제한 이유는 해방기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 과정을 통해 문학의 정치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정치적 문학 활동의 주체는 당연 당대의 지식인<sup>2)</sup>계층이었다. 정치적 세력에 협력하여 활발히

1) 염상섭, 「이합」 『,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340쪽.

2) 일반적인 개념에서 지식인이란 지식·교양을 갖춘 사람, 지식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지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생기게 되고 그 중 오직 정신노동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한다. 해방기 당시의 지식인 개념도 이러한 기본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정진석 「조선인텔리겐차론」(『신천지』, 1946. 12, 17쪽).은 “인텔리겐차는 자기의 지식 기타의 두뇌적 재능으로써

활동하는 지식인의 모습은 해방기 문단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였고 이를 반영하는 많은 지식인소설<sup>3)</sup>이 창작되었다. 결국 해방기 지식인소설은 해방기 문학의 두드러지는 유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대한 연구는 다른 해방기 인물 유형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하다.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해방기 소설 연구와 함께 해방기 지식인소설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연구사 검토

광복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혹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용어는 해방공간과 해방기이다.<sup>4)</sup>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논자는 김윤식으로 그는 해방공간이 밀폐된 공간, 정지된 시간성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했다.<sup>5)</sup> 그는 해방공간이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근거로 “국권상실기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과 “비논리적 심정적 사고와 행위가 지배되었던 때”라는 점을 지적했다.<sup>6)</sup>

생계의 길을 얻는 사회군”이라 규정하였다.

- 3) 지식인소설이란 이런 ‘지식인’계층의 인물이 서사의 주된 흐름을 이끄는 소설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지식인 주인공을 다룬 소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은 지식인소설의 개념에 대하여 “지식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면서 또 중심사건으로 지식인의 삶의 방법, 지식인 특유의 문제제기나 해결과정이 다루어질 경우”라고 정리했다. 또한 지식인 소설의 요건으로 첫째, 지식인이 주요 인물로 나타날 것, 둘째, 대체로 현실적 욕구와 이상사이의 갈등이 메인 플롯이 되어야 할 것, 셋째, 지식인의 본질과 역능 등에 관한 사유와 각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을 들었다. 이를 종합, 정리해보면 지식인소설이란 ‘소설에서 등장하는 중심인물이 이상적 사회를 지향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회와 갈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대적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소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소설 속에서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등장하더라도 지식인 인물을 통하여 발생하는 시대적 의무와 고민을 등한시한 채, 결국 지식인 인물이라는 설정이 하나의 소품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이는 지식인소설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 4) 이외에도 해방 직후(조남현, 이우용) 해방·교착기(이재선) 미군정기(서경석), 광복 직후(김성렬), 8.15 직후(임진영)가 있다.
- 5) 김윤식a, 「해방공간의 문학-지식인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한길사, 1985, 491쪽.

이에 송희복은 ‘해방공간’ 대신 ‘해방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방공간’이라는 용어가 “총체적인 역사 인식의 단위를 분절할 위험성”이 있고 “문학적 감수성이 정부 수립과 같은 급격한 변화와 무관하다는 일반론을 감안할 때”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sup>7)</sup> 또한 이병순은 기간의 문제에서 8.15 이후부터 단독정부수립(1948. 8. 15)이전까지의 작품과 전쟁 발발(1950. 6. 25)까지의 작품이 이렇다 할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기간을 48년 8월 15일까지로 제한하기보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보는 것이 옳다<sup>8)</sup>고 보았다. 이와 같이 용어와 기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시기를 조명하는데 있어 논자마다 초점이 다르다는데 있다.

해방공간에서 ‘공간’이란 폐쇄된 공간으로 시간적 단절성을 내포한다. 해방공간은 이전의 식민지시대와는 물론이요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과도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특수성을 갖는데, 이는 곧 문학 환경의 체제선택에 대한 자유에 근거한다.<sup>9)</sup> 그런데 대한민국 단독정부의 반공정책에 인해 형성된 문단 상황은 오히려 한국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과 더 유사하다. 그렇기에 48년 8월 이후 한국 문단의 상황은 해방공간의 공간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작품 자체를 놓고 볼 때, 해방공간의 문학과 정부수립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문학에는 어떤 질적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해방부터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문학을, 식민지시대 문학과 50년대 문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의 문학으로 시간적 연속성을 내포하는 ‘기간’의 의미를 포함하여, ‘해방기’ 문학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문단의 상황이나 문학 운동적 차원에서 본다면 해방공간과 단독정

6)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284쪽.

7) 송희복, 『해방기 문학 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12쪽.

8) 이병순, 「해방기 소설의 이념지향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1쪽.

9) 이러한 문학적 체제선택의 자유는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 급격히 변화하였다. 좌익 문학단체 ‘조선문학가동맹’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임화와 이태준은 물론이요 대표적인 좌익 작가인 안회남, 이근영은 이미 월북한 상태였으며 좌익 기관지 『문학』은 8호(1948.7)를 끝으로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당 비합법화를 법제화하자 많은 작가들이 전향을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동리, 조지훈, 서정주, 조연현 등 대표적인 우익작가들의 주도아래 순수문예지 『문예』(1948.8)가 발간된다.

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 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에 대한 차이점은 극명하나 막상 개별 작품들의 질적 수준이나 창작 방법론의 차원에서 본다면 두 기간의 차이점은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까지를 ‘해방공간’으로,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를 ‘건국기’<sup>10)</sup>로 놓고, 이 두 시기를 아울러 ‘해방기’로 구별하여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문학운동차원의 접근보다 개별 작품 위주로, 해방공간을 포함하여 1949년과 1950년 초의 발표작까지의 ‘해방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해방기소설 연구는 해방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 비평·운동사연구, 주제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해방기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비교적 초기연구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두루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자로 김윤식<sup>11)</sup>, 이재선<sup>12)</sup>, 정한숙<sup>13)</sup>, 권영민<sup>14)</sup>, 오현봉<sup>15)</sup>, 박재섭<sup>16)</sup>, 이우용<sup>17)</sup>, 안한상<sup>18)</sup>, 이병순<sup>19)</sup>, 김일수<sup>20)</sup>, 김동석<sup>21)</sup>, 차희정<sup>22)</sup>을 들 수 있다.

김윤식은 ‘해방공간’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해방기 문학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해방기의 이면에 숨겨진 정신사적 흐름을 연구하였다. 이재선은 해방기를 교착기로 명명하고 해방공간과 건국기를 분류하여 각각 시

10) ‘건국기’란 이재선이 사용한 바 있으며 건국기 소설은 들뜬 해방기 상황을 벗어나 사실적인 기법에 의해 풍자적 문체로 당대의 사회적 현실과 세태를 관찰, 제시 비판하는데 있어 그 나름의 독자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았다. 이재선, 『현대 한국 소설사』, 민음사, 1997, 78쪽.

11) 김윤식b,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c, 「한국소설의 미학적 기반(상·하)」, 『한국학보』, 2-3집, 1976

———d,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12)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13) 정한숙, 『해방문단사』, 고려대 출판부, 1980

14)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6

———,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5) 오현봉, 「한국현대소설의 사회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16)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석사학위논문, 1986

17)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18) 안한상, 「해방기소설의 현실인식과 형상화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1995

19) 이병순, 「해방기 소설의 이념지향성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20) 김일수, 「해방기 소설의 자기비판성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21) 김동석, 「해방기 소설의 비판적 언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22)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2009

대별 소설의 특징을 문학운동사와 함께 검토하였다. 정한숙은 해방 작가들의 좌익 활동을 비극이라 말하면서 해방기 좌익 작가와 작품들을 다루었는데 이전까지 금기시 되었던 임화, 안희남, 이기영, 이태준 등 좌익계열 작가들을 다루었다는 것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권영민은 해방공간의 문학을 좌우 대립의 문학운동적 관점에서 문학론, 시운동, 소설 각 영역에서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연구하였다.

오현봉은 해방기의 귀향, 빈곤, 미군정, 일제 잔재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소설적 관점에서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제섭은 해방기 소설의 등장인물을 소작농, 월남민, 잔재민, 지식인으로 분류, 이들이 보여주는 해방기 소설의 특수성을 기대와 좌절의 과정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우용은 위의 해방기 인물 연구를 세세히 다듬는 작업을 했는데, 해방공간을 3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상의 유형과 특징을 밝혔다. 안한상은 친일행위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소설의 형상화 및 현실인식과 소설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병순은 해방기 이념지향성 갖는 소설들을 좌익, 우익, 중도, 탈이념으로 분류,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김일수는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자기비판의 소설적 형상화를 연구하였다. 김동석은 기존의 연구가 역사주의 연구에 치우친 점을 반성하여 해방기 작가들 각각의 서술전략을 통해 해방기 텍스트의 언어가 갖는 비판적 성격을 연구하였다. 차희정은 해방기 소설의 현실인식과 그 극복과정을 탈식민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신문잡지 소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해방기 비평·운동사연구는 해방기 연구 중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된 연구이다. 비평운동사연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개별 작품을 제외한 비평운동사만을 다룬 경우와 당시의 문학기론과 그 이론이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까지 다루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 논자로는 김윤식,<sup>23)</sup> 정호웅<sup>24)</sup> 임현영<sup>25)</sup>, 신형기<sup>26)</sup>, 송희복<sup>27)</sup>, 김영

23) 김윤식e, 「해방후 남북한의 문화운동」,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24) 김윤식, 정호웅, 앞의 책, 1993

25) 임현영, 「미군정기 좌우익 문학논쟁」,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1987

26) 신형기a, 「해방직후의 문학운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27) 송희복, 『해방기 문학 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진<sup>28)</sup>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논자로는 김성렬<sup>29)</sup>, 하정일<sup>30)</sup>, 송기섭<sup>31)</sup>, 신덕룡<sup>32)</sup>이 있다.

김윤식은 해방 후 문인의 자기비판문제와 문학운동조직을 분류하여 각각의 문학이론을 정리하면서 비평사 연구의 초석을 다듬었다. 정호웅은 해방공간의 문학에서 나타난 문학이론을 살피고 각각의 문학이론에 해당하는 소설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임현영은 해방기 문학론 논쟁을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신행기는 해방기의 단체운동과 이론논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며 문학단체운동의 추이와 이론 생성, 논쟁의 과정을 동시에 다루었다. 송회복은 기존의 해방기 비평연구의 좌우파적 유형분류의 재고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신 시론비평과 원론비평의 유형분류를 통한 비평사 연구를 시도하였다. 김영진은 좌우, 중간파의 민족문학론을 개별논자들을 중심으로 정리, 연구하였다.

김성렬은 해방기를 좌우문단형성기, 대립심화기, 분단확정기 세시기로 나눠 각각의 시기에 해당하는 좌우파문학론을 밝히고 실제 창작에서의 성취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하정일은 해방기의 좌익문학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족문학론’을 연구, 그 방법적 원리로 리얼리즘을 들었다. 송기섭은 해방기 리얼리즘론의 갈래와 리얼리즘 소설의 반영층위를 살펴보았다. 신덕룡은 해방기 좌익 창작론인 민족문학론의 이론을 살펴보고 소설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문학가동맹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해방기 소설연구방법에는 주제적 연구가 있다. 주제적 연구는 해방기 소설 전체를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해방기에 드러나는 특수한 유형의 소설들을 선택, 한정하여 연구하는 유형이다. 크게 작가론 연구, 소설 인물별 연구, 그 외 주제연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작가론 연구의 대표적 논자로는 김윤식<sup>33)</sup>, 한형구<sup>34)</sup>, 정호웅<sup>35)</sup>, 이재

28) 김영진,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전주우석대 박사학위논문, 1993

29) 김성렬, 「광복직후 좌우대립기의 문학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30)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31) 송기섭, 「해방기 리얼리즘 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32) 신덕룡, 「해방직후 리얼리즘 소설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9

33) 김윤식f, 「이태준론」,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34) 한형구, 「해방공간에 있어서의 채만식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명<sup>36)</sup>, 박신헌<sup>37)</sup>, 신형기<sup>38)</sup>, 안상문<sup>39)</sup>이 있다.

소설인물 유형별 연구는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농민, 노동자, 지식인 등장인물들 각각에 해당하는 인물상에 대한 연구에 해당한다.<sup>40)</sup> 농민을 다룬 대표적 논자로는 조정래<sup>41)</sup>, 김승환<sup>42)</sup>, 김성경<sup>43)</sup>, 한형구<sup>44)</sup>가 있고 노동자를 다룬 논자로는 신형기<sup>45)</sup>, 신덕룡<sup>46)</sup>, 신재성<sup>47)</sup>이 있다. 농민소설과 노동자소설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등장인물차원의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즉 농민소설 연구는 해방 당시 가장 주된 문제 중 하나였던 토지문제와 농촌현실을 반영하는 농촌소설 연구로, 노동자 소설 연구는 당시 좌익 문학이론인 진보적 리얼리즘 소설의 전형인 계급소설 연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그 외 주제적 연구는 귀향 과정, 선택적 행위, 자기비판과 같은 한정된 주제를 다루는 소설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유형에 속한다. 대표적인 논자로는 정호웅<sup>48)</sup>, 조남현<sup>49)</sup>, 이정숙<sup>50)</sup>이 있다.

지식인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제적 연구 방법에서 인물유형별 연구에 해

35) 정호웅,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36) 이재명, 「채만식 소설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86

37) 박신헌, 「안회남 소설연구」, 『문학과 언어』 10호, 1989

38) 신형기b, 「순수의 정체-해방기의 김동리」, 『문학과 논리』 2호, 1992

39) 안상문, 「이기영 해방 이후 소설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06

40) 해방기 소설인물에 대한 분류 연구한 논자로는 대표적으로 박재섭, 김성렬, 이우용이 있다. 해방기 소설인물의 유형을 농민, 노동자, 지식인으로 정리한 논자는 이우용으로 그는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91)의 서론에서 지식인상, 농민상, 노동자상, 도시빈민상이 그 당시 대부분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계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도시빈민상은 다른 계층과 같은 유형분류가 아니다. 빈민은 지식인이나 노동자도 포함될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우용 역시 본론의 소설분석 과정에서 지식인상, 농민상, 노동자상을 다루며 도시빈민상 만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

41) 조정래, 「농민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 평민사, 1989

42) 김승환, 「해방공간의 농민소설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0

43) 김성경, 「해방직후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89

44) 한형구, 「해방공간의 농민문학」,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45) 신형기c, 「노동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2』, 평민사, 1989

46) 신덕룡, 「해방직후 노동소설의 현재와 전망」, 『폭풍』, 시인사, 1990

47) 신재성, 「해방직후 노동소설과 인민성의 문제」, 『외국문학』, 1991

48)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49)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50)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48호, 현대소설학회, 2011

당한다.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김윤식의 「해방공간의 문학-지식인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에서부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전반적인 성격은 해방 이후 작가들의 논의를 통한 친일청산 문제와 좌우익 문학단체들을 다루는 것이었지만 중심 논의 이후 개별 작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식인이 등장하는 소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해방기 지식인 연구의 첫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 분류에 대한 논의는 해방기 소설 초창기의 논의 중 하나인 박재섭<sup>51)</sup>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해방기 소설의 인물 유형 분류는 김성렬, 이우용<sup>52)</sup>에 의해 농민, 노동자, 지식인으로 다듬어지는데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해방기 인물 유형 분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이는 인물유형별 소설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박재섭은 해방기 지식인 인물들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해방기 발생하는 기대와 좌절의 과정에서 다른 인물유형들은 이를 순응하는데 비하여 해방기 지식인 인물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점으로 보았다. 이우용은 해방기를 세 시기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좌익 지식인상, 우익 지식인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해방기 지식인상의 자기비판을 역사에 참여하는 지식인의 자기변명 혹은 자기합리화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았다.<sup>53)</sup>

박재섭과 이우용이 정리한 해방기 지식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해방기 지식인은 다른 인물 유형에 비하여 당시 시대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인물유형에 속한다. 둘째, 지식인 인물들은 해방기의 현실에 좌절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반성과 변화 등 극복 의지를 비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해방기 지식인소설만을 개별적으로 다룬 논의는 정호웅<sup>54)</sup>, 임현영<sup>55)</sup>, 이

51)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석사학위논문, 1986

52) 김성렬, 「광복직후 좌우대립기의 문학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53) 이우용, 앞의 책, 34쪽.

54) 정호웅, 「해방공간의 소설과 지식인」, 『한국학보』 15호, 일지사, 1989



상재<sup>56)</sup>가 있다.

정호웅은 해방공간 지식인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해방공간의 지식인이란 자기비판 추구의 주체라고 보았다. 이 논문은 해방기 지식인소설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으나 심도 있는 분석 대신 탐색차원 정도로 지식인소설을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임현영은 해방기 지식인의 정신사적 현실인식을 문학 외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해방기 지식인소설 연구가 목적이 아닌 해방기 지식인 연구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결국 문학적 연구보다 사회학적 연구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이상재는 해방기 지식인의 주체 형성 과정과 좌절이 소설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지식인소설에 대한 연구는 해방기 다른 인물 유형인 농민, 노동자 소설 연구에 비하여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을 보여준다.<sup>57)</sup> 지식인소설이 농민, 노동자 소설보다 상대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농민, 노동자소설이 해방기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을 소재로 다룬데 반하여 해방기 지식인소설은 소수의 지식인을 다뤘다는 점<sup>58)</sup> 둘째, 지식인소설이 자기체험적 서술에 머무는 데 비하여 농민소설은 농촌현실을, 노동자소설은 노동운동 환경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였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는 당시 계급문학에 더 적합하다는 점 셋째, 해방기 지식인소설 작품은 지식인소설에 대한 개별연구보다 작가론, 자기비판, 이데올로기, 리얼리즘, 선택적 행위, 현실인식 등 다른 주제적 논의에서 동시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5)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

56) 이상재, 「해방기 지식인소설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99

57) 해방기 농민소설을 다룬 논자로는 조정래, 김승환, 김성경, 한형구, 신형기, 최미임, 허정희, 김철중, 방재욱, 이영미가 있고 해방기 노동자 소설을 다룬 논자는 신형기, 신재성, 신덕룡, 임진영, 장두식, 전홍남이 있으며 해방기 지식인소설연구로는 정호웅, 이상재가 있다. 단, 이는 각각의 인물유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에 해당한다.

58)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에서는 “공장 및 수공업 노동자가 약 40만이요 또 광산 및 토목관계의 자유노동의 성질을 가진 유랑 및 분산노동자가 약 50만”이며 이에 비하여 “진보적 인텔 리가 수천명”이었다는 배성룡, 『자주조선의 지향』 (광문사, 1949)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방기 지식인소설의 중요성이 다른 인물유형의 소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설을 창작하는 주체는 대부분 농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 작가이기 때문이다. 농민, 노동자 소설은 ‘체험된 것’보다 ‘관찰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소설은 ‘체험된 것’을 다루는 지식인소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제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김성렬은 이에 대하여 “광복-직후의 전 시기에 걸쳐 당대의 사회상을 묘사하려한 작가들의 신분이 ‘지식인’ 범주”에 들기 때문에 “지식인 작가에 의해 역사의 전면으로 떠오르는 기층민중의 삶은 관념화와 추상화의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sup>59)</sup>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호웅은 해방공간의 소설에서는 지식인의 소시민성에 대한 자기비판을 위하여 농민과 노동자의 절대성이 강조<sup>60)</sup>되었고 때문에, 노동자·농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대체로 과도한 현실왜곡에 의해 그 성과를 제한 받았음에 비해 지식인을 다룬 경우, 현실왜곡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sup>61)</sup>고 보고 있다.

지식인소설 연구는 당대의 소설 창작의 주체였던 지식인 작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지식인 작가에 의해 창작되는 해방 당시의 농민, 노동자 소설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지식인 작가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대한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소설 창작의 주체인 작가와 허구의 지식인 인물을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설 창작의 과정이 ‘두뇌적 재능’을 통한 ‘정신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당시 소설을 쓰는 작가의 계층이 대부분 지식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지식인소설에서 등장하는 지식인 인물이 자주 작가와 동일 시 된다는 점<sup>62)</sup> 등을 살펴볼 때, 소설 창작

59) 김성렬, 앞의 책, 102쪽.

60) 이와 같은 인식은 당시의 소설에서도 드러난다. “너나없이 노동자라면 그대로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와서, 일의 두서를 잡지 못하더군요-” 지하련, 「도정」, 『한국소설의 얼굴-잔등 외』, 푸른사상, 2006, 231쪽.

61) 정호웅, 「해방공간의 소설과 지식인」, 『한국학보』 15호, 일지사, 1989, 6, 10쪽.

62) 이태준의 「해방 전후」의 부제는 ‘한 작가의 수기’로 지식인 현의 이야기가 작가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함을 앞서 밝힌다. 또한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에서도 소설 초반부에 채만식 본인의 작품인 「맹순사」를 언급하며 소설적 형상화된 주인공 지식인

주체와 지식인 인물의 긴밀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독립된 연구가 부족했던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다루려고 한다. 개별 작품에서 나타나는 지식인 주인공과 해방기 사회의 형상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식인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형상화된 해방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3. 연구 방법론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소설의 허구적 세계와 실제 현실을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소설에서 나타난 현실인식’이란 말은 실제 현실과 소설의 허구적 세계에 대한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그 뜻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세계는 실제 현실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는데 이는 실제 현실이 소설 창작의 원자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의 세계는 작가의 상상력을 토대로 언어를 통해 구체화된 독립적인 또 다른 세계일 뿐 실제 현실과 어떤 물리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인데 허구란 소설의 세계가 현실의 실재와 본질적으로 그 근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설의 세계는 실제 세계에 대한 작가적 이해의 결과물이다. 이는 실제 세계에 대한 반영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실제 세계에 대한 작가의 변형이라는 의미 또한 내포된다. 여기서 작가적 이해는 현실인식을, 결과물은 소설적 형상화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곧 현실인식은 작가 내면의 실제 세계에 대한 사고 과정이며 이것이 언어를 통하여 체화體化 된 것이 소설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과 실제 현실간의 관계는 소설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솔즈와 켈로그는 “서사적 예술에서

---

이 채만식 본인임을 드러낸다. 허준의 「평매저울」과 안희남의 「불」에서 역시 서술자가 작가임을 드러내며 「불」에서는 서술자의 성이 안씨 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의 의미는 두 세계들, 즉 작가가 창조하는 허구적 세계와 이해 가능한 우주인 현실의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기능”<sup>63)</sup>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소설에 대한 이해는 소설의 허구적 세계와 실제 세계의 연결점인 현실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의 허구적 세계와 실제 세계와의 관계설정 곧 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문학연구의 가장 주된 두 가지 관점인 형식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현실인식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이 둘을 변증법적으로 보완하는 바흐친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르크스주의는 문학이 사회과정을 거울과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엥겔스는 마가렛 하크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자크의 ‘인간희극’을 통해 느낀 문학의 현실반영에 대한 효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발자크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프랑스 사회의 완벽한 역사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심지어는 경제학적 세부 사실에 이르기까지도 당대의 모든 직업적인 역사가, 경제학자, 통계학자들이 수집해 놓은 저서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sup>64)</sup>

마르크스주의 ‘반영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의 현실인식은 곧 현실의 반영이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하면 사회 구성체는 물질적 층위인 하부구조와 정신적 층위인 상부구조로 나누어지고 문학을 포함한 모든 상부구조는 마치 거울처럼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sup>65)</sup> 결국 소설에 대한 평가는 소설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실제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로 규정되는 것이다.

형식주의는 작품을 온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보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주

63)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 2001, 113쪽.

64)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마르크스·엥겔스 문학예술론』, 한울, 1988, 149쪽.

65)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기론』, 문학과 지성사, 1988, 72쪽.

장한 문학의 사회 반영적 측면을 거부하였다. 대신 형식주의는 개별 문학 작품에 집중하여 형식에 미학과 의미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형식주의자들의 이러한 시도는 문학 연구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점과 문학을 기존의 정치, 사회, 철학의 영역에서 독립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견해 덕분에 문학은 문학 외적인 평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으로 평가 가능하게 되었다. 형식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설의 현실인식 문제는 실제 세계와 깊은 연관을 갖기 어렵다. 소설에서 ‘현실’ 곧 실제 세계를 끌어들이는 노력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소설 내의 현실인식은 소설 내부에서 부여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며 대신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곧 소설적 형상화 자체가 작품 분석의 주된 관심이 된다. 그렇기에 형식주의는 소설적 형상화의 문제 곧 언어, 플롯, 문체 등의 문제에 천착한다.

바흐친은 마르크스주의와 형식주의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한다. 그는 서로 통합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 대립적인 문학이론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비판하여 보완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형식주의가 동시에 범하고 있는 문제인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리시키고 한 쪽에 우위를 두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본질적인 것은 내용에, 비본질적인 것은 형식에 해당하는데 즉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바흐친의 사고를 소설의 현실인식에 연결시켜 본다면 현실인식은 바흐친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상화는 비본질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흐친에 의하면 문학작품에서 있어서 이 둘은 육체와 의복의 관계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관계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서 있기 때문이다.<sup>66)</sup> 문학은 사회현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를 굴절 시킨다. 문학 혹은 “예술 작품은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사회적 현실의 일부이다. 문학 작품은 그 자체 밖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반영함으로써 동시에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환경의 현상이 된다.”<sup>67)</sup>

바흐친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당시대 사회

66) 김옥동, 앞의 책, 103 쪽.

67) 위의 책, 102 쪽.

상의 완전한 반영이나 혹은 해방기의 시대를 벗어난 별개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은 바흐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르크스주의나 형식주의적 사고가 지녔던 잘못을 다시 범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은 해방기 사회 현실의 반영일 뿐 아니라 작가 사고의 굴절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로 해방기의 이데올로기적 사회 환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굴절된 실재 곧 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은 작가의 실제 세계에 대한 작가의 욕망과 시대에 대한 비평, 이상적 지향이 담긴 사고의 총체인 것이다.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실인식의 과정이 두 가지 대립적 사고의 갈등과 이러한 갈등의 극복과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방기 지식인소설 개별 작품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분석하여 해방기의 소설적 형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형상화한 해방기 사회상의 대표적 모습들을 역사적, 정치적, 일상적인 것으로 분류해보았고 이 세 가지 양상에서 나타나는 해방기와 지식인 형상화를 분석했다.

3장에서는 2장의 소설적 형상화를 토대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갈등양상을 통하여 작가가 지닌 해방기에 대한 현실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2 장 해방기 지식인소설에 나타난 현실 형상화 양상

### 1. 식민지시대를 통한 해방기 현실 이해

해방이 된 조선은 역사적,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는 개인의 내면까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것은 아니었다. 채만식의 “편안한 해방을 우리가 황재”<sup>68)</sup>하였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해방은 어떤 격정적인 운동이나 진취적인 사건을 통해 이뤄졌기보다 일제의 패전을 통해 문득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기에 해방이라는 외적 상황 변화를 내적으로 수용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해방기 개인의 내면에는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된 죄의식, 폐쇄성, 무기력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방기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내면적 고민을 무시한 채 식민잔재 청산과 새나라 건설이라는 구호가 지배했다. 이러한 해방기 상황은 작품 내에서 식민지시대를 아예 배제한 채 해방기의 모습만을 다루는 방식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식인소설에서는 식민지시대의 연결선상으로의 해방기를 인식하려는 역사적 관점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1946. 8), 지하련의 「도정」(1946. 8),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1946. 5), 김만선의 「귀국자」(1949)가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통하여 해방기를 형상화한 지식인소설의 대표적 예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지금부터 식민지시대의 형상화와 동시에 해방기 형상화를 시도한 각각의 작품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는 해방을 체험하는 지식인들의 심리상황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해방기 지식인소설이다. 또한 해방 이후 순수문학을 옹호하던 지식인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이 담긴 자전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이태준이 경향성보다 순수성을 지향하는 「문장」

68) 채만식, 「민족의 죄인」, 『채만식 전집8』, 창작과 비평, 1989, 418쪽.



지의 편집자 겸 발행인이었듯 주인공 현 역시 해방 이전에는 순수문학을 옹호했던 지식인이다. 그런 그가 해방 후 좌익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분명 해방 이전의 그의 모습과 모순되는 일이다. 이런 현의 전향은 소설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문제로 제시된다. 결국 「해방 전후」는 현 혹은 작가 이태준이 해방 이후 왜 좌익 이데올로기 문학단체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의 소설적 형상화인 것이다.

일단 해방 이전의 현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살펴보면 ‘계급보다 민족의 비애에 더 솔직했’기에 ‘계급에 편향했던 좌익엔 차라리 반감’이었으며 그의 소설은 ‘신변적인 것’에 그쳤던 것이었다는 부분으로 보아 그는 좌익 이데올로기와 거리가 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의 태도는 해방 이후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이하 문협<sup>69</sup>)의 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순간이나 문협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결국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지식인 현은 문협에 가담하였으나 사상적으로 좌익 이데올로기에는 동조하지 않는 인물인 것이다. 현은 좌익대중단체 주최의 ‘적색데모’에 환호하는 동지들을 막아서며 침착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문협 회관에 걸린 ‘조선인민공화국 절대지지’라고 쓰인 광목 전폭을 거둔다. 현의 사상이 문협의 조직원들의 사상과 다르다는 사실은 문협의 ‘적색데모’를 지지한 친구가 그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열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보다 한 사람의 현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해방 전후」의 가장 핵심적 문제를 ‘왜 현이 좌익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게 되었는가’에서 ‘왜 사상적으로 좌익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은 현이 좌익이데올로기 문학단체에 가담하게 되었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방 이전의 현의 모습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해방 전후」의 전반부에는 주인공 현의 해방 이전의 모습이, 후반부에는 현의 해방 이후 상황이 그려진다. 이 같은 구

69) 조선문화건설 중앙협의회란 해방 직후에 결성된 좌익 계열의 문학 단체로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성향이 비슷한 조선연극건설본부, 조선영화건설본부, 조선음악건설본부, 조선미술건설본부 등의 연합체이다.



조는 현의 전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작가적 전략인 것이다.

태평양 전쟁 말, 점점 심해지는 일제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 현은 ‘살아 건디어 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낙향을 결심한다. 그는 강원도 어느 산읍에서 낚시나 하면서 때를 기다리길 바랐으나 그 곳에서 역시 현은 주재소의 닦달로 인해 친일 문학단체인 ‘문인보국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해방 이전의 현의 모습은 생존을 위한 ‘소극적 처세주의’에 해당한다. 이는 생존의 위협으로 인하여 저항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나마 일제의 요구를 들어주는 친일양상이다. 즉 적극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지만 저항하지 않으며 최대한 은둔하여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현이 시골에서 소극적 처세를 하는 와중 조선은 해방이 된다. 현은 ‘급히 상경하라’는 친구의 전보를 받고 내심 기대를 하며 서울로 출발한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던 중 현은 버스기사들끼리의 대화를 통해 일제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순간 버스 안의 동포들은 현을 따라 기뻐하기는커녕 ‘하나같이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똑똑히 모르는 걸’ 함부로 말했다가 어떤 화를 받을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처세의 모습이며 식민지시대 현이 견지한 태도였다. 현은 ‘조선이 독립된다는 감격보다도 이 불행한 동포들의 얼빠진 꼴’에 좌절을 느낀다. 이러한 현의 좌절은 해방 이후 변모하는 현의 행보의 시작점이다. 여기서 현은 해방의 감격조차 즐길 수 없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며 이전의 자신의 소극적인 처세주의에 환멸을 느끼게 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극단적인 행동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주의적 면모를 갖게 된 현은 문협의 ‘조선 사정에 대한 진실한 정신적 준비’를 보고 어떤 신중한 고민도 없이 급작스런 가입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의 전향 이유는 김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된다. 김직원은 해방 이전에는 ‘기인여옥’이라 예찬되며 지조 있는 유학자로 그려지다가 해방 이후에는 ‘돌과 같은 완강한 머리로 조금도 현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봉건적 사고에 매여 있는 구시대적인물로 그려지는

이중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인물이다. 그는 해방 이후 삼팔선을 어렵게 넘어 서울로 현을 찾아와 그의 전향이유, 사회주의 노선 문제, 신탁통치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질문하는데 이에 대한 현의 대답은 소설을 통하여 작가가 하고 싶었던 논의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현의 전향이유가 소극적 처세에 대한 반발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감사합니다. 또 변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변했으니, 안 변했으니 하리 만치 해방전에 내가 제법 무슨 뚜렷한 태도를 가졌던 것도 아니구요. 원인은 해방 전엔 내 친구가 대부분이 소극적인 처세자들 때문입니다.”

-(중략)-

“처세주의는 저 하나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혐의는커녕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일해야 될, 민족이 가장 긴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sup>70)</sup>

이를 통해 현의 해방기 ‘적극적 행동주의’는 식민지시대의 ‘소극적 처세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임이 나타난다. 곧 해방기는 식민지시대와 다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해방을 통한 변화에 성공한 현에 비하여 해방을 통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김직원은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는 구시대적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지하련의 「도정」은 「해방 전후」와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이 제정한 제 1회 해방기념 조선문학상 수상 작품이다. 해방 이전 석재는 거창한 꿈을 품고 공산주의 활동을 시작 하였으나 감옥에 갇히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시골로 내려가 ‘죽은 듯 잠잠’하게 시간을 보낸 지식인이다. 그는 자신의 도피에 대하여 강한 회의감을 느끼지만 광산 일을 하는 친구 ‘기철’은 단지 그가 ‘결백주의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석재는 회의감으로 인한 심적 고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울의 친구를 만나러 떠나게 되는데,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 그는 조선이 해방되었다는 소

70) 이태준, 「해방 전후」, 『한국소설의 얼굴-잔등 외』, 푸른사상, 2006, 299쪽.

식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을 맞이한 석재의 태도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그는 가슴이 철썩하며 눈앞이 아찔하였다. 일본의 패망, 이것은 간절한 기다림이었기에 노상 목전에 선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중략)- 그림자와 같은 수천 수백 매듭의 상념들이 미칠 듯 급한 속도로 팽개비를 돌리다가 이어 파문처럼 퍼져 침몰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은 극히 순간이었을 뿐, 다음엔 신기할 정도로 평정한 마음이었다. -(중략)-

그는 역시 어떤 싸늘한, 거반 질곡에 가까운, 맹랑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sup>71)</sup>

석재가 해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해방 전후」의 현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전의 소극적인 처세주의 행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죄의식이 ‘수천 수백 매듭의 상념’이 되어 그를 ‘침몰’ 시켰기에 해방에 대한 흥분은 거의 고통에 가까운 ‘맹랑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죄의식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석재를 ‘무엇인가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게 만든다. 그는 무슨 감동이든 한번 감동이 와야만 할 판‘이라고 생각할 뿐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데 이런 석재에게 청년 김은 그것이 ‘팔월 십오일 후에 생긴 병’이라고 지적한다.

청년 김은 해방 이전 공산주의 활동을 함께 했던 석재의 동료로 서울로 온 석재를 친절하게 맞아준다. 해방 이후 무감동으로 변민하던 석재는 선뜻 공산당에 돌아오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뜻밖에 소식을 듣는다. 해방 이전 사익을 좇아 광산 사업에 매진했던 기철이 공산당의 최고 간부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석재가 겪고 있는 해방 이전의 삶에 대한 고민 없이 최고 간부가 된 기철을 통해 석재는 반성과 참여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이에 김은 ‘혼란한 시기라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기회주의는 금물’이라고 말하며 갈등하는 그에게 적극적으로 운동에 가담할 것을 부추긴다.

71) 지하련, 「도정」, 『한국소설의 얼굴-잔등 외』, 푸른사상, 2006, 222쪽.

석재는 해방 이전 수수방관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해방 이후 참여욕구 사이에서 고민한다. 그는 해방 이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통해 자중 하려는 중에 기철과 ‘당’을 만든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축들’에 불과하다는 자각을 통하여 참여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낀다.

어디까지 웅졸한 주제에, 그래도 소위 그 양심이란 어금길에서 제 간엔 스스로 고민하는 척 몸짓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석재 자신과 비슷한 축들이었다.-(중략)-

“그래 이 사람들이 모여 ‘당’을 만들었던 말인가?”

물론 그럴 리는 없다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얼굴이 후끈 달아오름을 깨달았다. 조금 전 기철이 최고 간부라는 데 앙양하던 마음속엔 ‘그럼 내라도 될 수 있다’는 엄폐적 자기감정이 숨어 있지 않았던가?<sup>72)</sup>

기철은 석재로 대표되는 양심적 지식인에 반하는 모리배 지식인의 전형이다. 모리배 지식인은 해방기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식인 인물 유형으로 주로 기회주의적, 친일적 모습으로 그려진다. 기철은 석재가 고민하는 해방 이전의 태도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공산당의 최고 간부가 되어 버젓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소설은 기철과 석재를 대조시키면서 석재의 고민에 대한 무게를 더 실어주게 되는 것이다.

석재의 반성과 참여에 대한 갈등은 123철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는 중에서도 끊임없이 제기 된다.

반성이란 앞날을 위해서만 소용되는 것이니까. 과도한 자책이란 용기를 저상케 하는 것이고, 용기를 잃게 되면, 제이 제삼의 잘못을 또다시 범하게 되는 거니까……<sup>73)</sup>

---

72) 지하련, 앞의 책, 229쪽.

73) 위의 책, 232쪽.

반성과 참여에 대한 석재의 고민은 소설 전체에서 흐르는 주된 문제의식이다. 이 고민은 소설 내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석재가 입당을 위해 자신의 계급을 쓰는 부분에서 극적으로 해소 된다. 석재는 자신이 ‘투사’도 ‘혁명가’도 아니고 ‘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운동자’도 아닌 ‘소부르주아’ 곧 소시민임을 인정한다. 석재는 자신이 소시민임을 인정하게 되자 해방의 순간 느껴야 했던 ‘마음의 후련함’과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석재가 자신의 계급을 ‘소부르주아’로 기입하는 부분은 반성과 참여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곧 자신의 소시민성을 아는 것은 그토록 고민한 반성의 근거가 되며 그 ‘소시민성과 싸우’는 것이 작가가 지향하는 참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생각하는 반성과 참여로 상징되는 지식인 갈등의 이상적 종합의 결과인 동시에 기철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해방기 지식인들이 가져야 할 근본 자세인 것이다.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결부되지 않은 채 해방기 지식인의 친일청산의 문제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민족의 죄인」에서 채만식은 이전 자신의 작품들과는 차별화된 자세로 작가 본인의 친일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채만식의 풍자 문학의 대상은 언제나 그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나 채만식은 「민족의 죄인」에서 작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이전의 풍자적 태도를 최대한 절제한 채 담담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식인의 친일 문제는 채만식이 생각하는 해방기 지식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면서 다루기 힘든 주제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족의 죄인」에서 서술자이자 친일 지식인인 ‘나’의 이름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지만 소설 내용을 통해 주인공 ‘나’는 채만식 본인임을 드러난다. 이는 친구 김이 주인공 ‘나’에게 채만식의 실제 작품인 ‘맹순사’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나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년, 월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족의 죄인」은 전체적으로 일종의 해명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sup>74)</sup>

74) 「민족의 죄인」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해명적 성격은 일종의 자기 변호적 문법의 반복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주인공 아내의 단순 소박한 논리인 “형벌이 쥔 속량해 주는 건 아니다 자리에 멈추고 있는 수준의 「민족의 죄인」은 일종의 변명에 해당 될 것

소설의 구조 역시 이러한 해명적 성격에 부합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해방 이후 주인공 ‘나’는 P사에서 대일협력의 혐의가 없는 지식인 윤을 만난다. 윤은 나에게 ‘호박이랑 옥수수랑 많이 수확하셨읍디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소설 중반부의 ‘나’의 친일 경력을 서술하는 내용과 후반부의 윤과 김의 친일 지식인 처단 논의의 단초가 되는 질문이다.

소설의 시간은 윤의 질문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하여 45년 4월 낙향을 했다는 해방 직전의 시기로 소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낙향의 이유를 해명하기 위하여 다시 광나루에서 있었던 폭격기 사건과 43년부터 시작된 친일 강연으로 소급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43년부터 시작된 친일 강연의 이유에 대하여 38년 3월의 수감을 통해 겪은 고통스러웠던 경험으로 다시 소급한다. 곧 이 소설의 식민지시대에 대한 서술구조는 어떤 행위를 서술하는 데 있어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해명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서술을 통한 해명적 성격은 이후 친구 김이 친일 지식인 처벌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정상참작’의 내용과도 상통한다.

‘나’의 식민지시대 서술을 통하여 윤의 질문에 대한 해명이 일단락되며 소설은 해방기 사회문제인 친일 지식인 처벌 문제로 돌아선다. 이는 소설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윤과 김의 대화 과정을 통해 형상화된다.

윤은 표면적으로 친일을 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개도야지만 못한 것들’ 곧 친일파가 ‘숙청이 되기 전엔 건국 사업이구 무엇이구 나서고 싶질 않’다고 말하며 친일 지식인들의 강경한 처벌을 주장한다.

출판사 P사를 주관하는 김은 ‘나’를 포함한 친일 지식인의 숙청을 주장하는 윤에게 ‘시험받을 적극적 기혈 가져보지 못한 사람’ 곧 ‘결백을 횡재한 사람’이라며 맞대응 한다. 윤과 김은 해방기 친일 지식인 처벌 문제에 있어 대립하는 양 극단의 신념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 둘의 대화는 작가 채만식이 생각하는 두 대립 세력 간의 주된 논점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이 하는 마지막 변론은 채만식이 생각하는 친일 지식인 처분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수용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다” 김윤식a, 앞의 책, 486쪽.

그렇지만 벌이라는 건 그 범죄가 끼친 영향을 참작하구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구, 그리구 범죄 이후의 심리와 행동을 참작하구, 그래가지구 처단에 경중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sup>75)</sup>

잘못의 영향, 정상, 반성의 참작을 통하여 처벌의 경중을 묻자는 김의 의견은 작가 채만식이 생각하는 친일 지식인 처단 문제의 최고의 대안이다. 어라한 의견은 그의 해방기 다른 작품인 「역로」에서도 언급되는데 친일 지식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보다는 공정하고 정돈된 처벌 대안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작가적 소망이 자기모순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안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변호’나 ‘피고’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 자격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사. 완전히 변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격인 내가 우선

“아니 검사의 논고가 옳고, 변호인의 주장은 아모 소용도 없어.”<sup>76)</sup>

여기서 ‘나’는 자신을 ‘피고’의 입장으로 놓고 ‘변호’의 입장인 김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김이 말하는 친일 처벌에 대한 방법은 힘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나’의 친일 문제에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자각이 작품의 초두에 나온 “일종의 자포적 울분과 그리고 이 구차스런 내 몸뚱이를 도무지 어떻게 주체할 바를 모르겠다는 불쾌감”<sup>77)</sup>의 이유인 것이다.

이 같은 자괴감으로 낙향을 고민하는 중 ‘나’의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조카’가 그의 집에 도착한다. 조카가 다니는 XX서 중학교는 친일 교사 문제로 동맹 휴학에 들어갔으며 이에 조카는 ‘넌 모레가 졸업’이라는 이유로 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채 일이 해결 될 때까지 공부를 하러 ‘나’의

75) 채만식, 「민족의 죄인」, 『채만식 전집8』, 창작과 비평, 1989, 451쪽.

76) 위의 책, 452쪽.

77) 위의 책, 414쪽.



집에 찾아 온 것이다. 그런 조카를 ‘나’는 모질게 혼계한다. ‘나’의 혼계는 자신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통한 친일활동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며 친일 혐의에서 자유로운 신진 지식인들의 이기적 처신에 대한 안타까움의 반영인 것이다.

김만선은 해방기 두드러지는 작품 활동을 한 작가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서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형상화하는 방식이 주장이나 관념을 생경하게 노출시키는 차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sup>78)</sup> 해방기 문학 연구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이다.

김만선의 「귀국자」는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온 지식인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귀국자」역시 앞서 살펴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해방기 현실의 문제들이 식민지시대부터 시작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혁은 해방 이전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 전형적인 귀국 지식인이다. 귀국 후 딸 경희는 휴학을 하게 해달라고 떼를 쓴다. 그녀가 휴학을 하려는 이유는 오랫동안 일본어만 사용한 탓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경희의 모습에 혁은 ‘누구의 탓이냐’며 탄식하는데 이러한 탄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의 모습이다. 그는 해방 이후 친일의 잔재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아직 한국어가 어설픈 딸 경희와 그가 사는 ‘일본집’의 모습을 통해 상징되듯 이전의 친일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주도적인 친일파가 아닌 아내의 적극적인 친일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하여 친일을 하게 되는 소극적인 친일파로 그려진다. 이정숙은 혁을 “아내를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삶을”<sup>79)</sup> 산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혁이 파악하는 자신의 문제는 「해방 전후」 현의 ‘소극적 처세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딸 경희가 일본인이 되어가는 모습과 아내 영애의 적극적인 친일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통감하면서도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78) 정원채, 「김만선 문학세계의 변모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3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94쪽.

79) 이정숙, 앞의 책, 15쪽.



이러한 혁의 소극적 처세주의 태도는 그가 신문사에서 일할 당시 쌀 배급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전쟁이 격화되고 만주에서 조선인에 대한 쌀 배급이 줄자 장덕수를 포함한 신문사의 동료들은 신문에 일본제국주의 타도하는 내용을 신자고 그를 설득하지만 정리장부인 혁은 이를 거부한다.

이런 와중에 해방이 되고 혁은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 ‘해방의 덕택을 보려는 기분으로 높직한 자리만을 연상하며 귀국’한 혁에게 해방 조선의 현실은 막막하고 냉정하기만 했다.

조선 안이라고 인재가 없을 건 아닌데 만주에 있던 지식인들 속은 협화회나 만주국 관리로 앉아 있는 게 무슨 정치운동에나 참가한 것처럼 믿고 정치가연 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은 땅이 좁으니까 그리고 정치운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 정치적 수완을 가진 인재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망령된 인식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혁 자식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만 오면 무슨 자리든 높직한 의자를 차지하게 되리라 믿었었다.<sup>80)</sup>

혁의 공명심은 해방기 조선의 상황에 의해 좌절되고 이전의 친일에 대한 과오는 그가 사는 ‘일본집’처럼 끝까지 남아 그를 구속한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변혁을 바란다. 그렇기에 그는 ‘제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는 ‘노’를 터뜨리고’ 싶어하며 ‘무한히 흥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혁은 소설의 마지막까지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답답증을 풀기 위해 친구 김인수를 찾는데 김인수는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몸을 투신하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는 혁에게 탁치문제를 물어보며 자신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나 혁은 김인수의 제안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그를 따르지 않는다. 혁은 김인수와 헤어지고 난 뒤 거리를 배회하다 탁치를 찬성하는 데모행렬과 반대하는 군중들이 충돌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곳에서 혁은 적극적으로 탁치 찬성

---

80) 김만선, 「귀국자」, 『한국소설의 얼굴 별을 헨다 외』, 푸른사상, 2006, 176쪽.

운동을 하는 김인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혁의 낮은 화끈 달아오른다. 해방 후 한 번도 그는 마음껏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본 일이 없다. 그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만세를 부를 용기가 없어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넌 조선을 떠나야 할 게 아니냐!’ 81)

혁이 인식하는 자신의 문제는 행동과 입장표명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혁의 태도는 이미 식민지시대 만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해방기 조선이라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결과적으로 혁에게 조선을 떠나거나 아내의 청을 받아 돈벌이라도 마음껏 해볼 것을 고민하게 하는데, 이 같은 혁의 자포자기적 심정은 이전의 식민지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해방기 사회의 냉대와 기회의 부재에 대한 작가적 인식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 2. 지식인 정치참여 과정 형상화

해방기는 문학과 정치의 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시험된 시기였으며 정치적 대립이 곧 문단의 대립으로 적나라하게 연결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런 문학과 정치에 대한 해방기적 특성에 대하여 김윤식은 “문학과 정치를 동일하게 보느냐 각각 다른 범주로 보느냐를 문제 삼는 일이 해방공간에서만 낯카롭게 인식된 적은 없다”<sup>82)</sup>고 말한다.

이 같은 해방기 문학의 정치성은 작가들의 문학단체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다. 해방기 문학 단체들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학계는 좌익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조선문학가동맹과 우익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로 양분되어 있었다. 이들은 문학

---

81) 김만선, 앞의 책, 184쪽.

82) 김윤식a, 앞의 책, 470쪽.

비평과 창작론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각각의 이론에 입각한 작품 창작을 하였다.

해방기 소설에서 등장하는 지식인 인물들은 해방기 지식인의 작가적 형상화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 운동 특히 이데올로기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는 지식인의 모습은 해방기 대부분의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러한 해방기 지식인의 정치성에 대하여 다른 소설로 이근영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1948. 6), 김명선 「초료」(1948. 12), 전홍준 「새벽」(1948. 4), 김동리 「지연기」(1946. 12) 채만식 「이합」(1948. 1), 「재회」(1948. 8), 김영수 「혈맥」(1946. 7)이 있다. 이들 소설에서 나타나는 해방기 지식인의 정치성에 대한 형상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는 해방기 지식인소설 중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매우 뚜렷한 소설로 좌익 이데올로기와 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통해 분명한 목적성을 드러낸다. 주인공인 박교수는 문학에 정치성을 개입시키지 않는 중립적인 성향을 지닌 지식인이다. 박교수의 동료인 김교수가 정치성이 없는 문학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그의 문학관을 비판하자 불쾌한 기분에 그는 김교수를 떠나 윤교수의 집으로 찾아간다. 박은 윤교수의 집에서 미국인과 장연만을 만난다. 이들은 수출 금지품인 중석을 수출하는 사업을 모의하고 있었다. 이에 박교수는 조선 산업에 발전을 줄 수 있는 기계를 수입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그러나 윤교수와 장연만은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박교수의 제안을 무시한다. 후에 윤교수는 문학부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김교수를 모함하고 김교수가 사임하자 빈 교수자리를 장연만에게 준다. 해방기 시대적 특성을 이용하여 비리와 불의를 서슴지 않으며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윤교수와 장연만은 모리배 지식인상의 전형이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이러한 모리배 지식인 인물은 일관되게 우파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묘사한다. 반대로 옥란, 김교수, 민우식, 유하근은 좌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은 모두 순수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김교수의 부당한 사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자 학교 측은 교수회의를 통해 휴학을 주도한 학생들을 퇴학시킨다. 박교수가 부당한 퇴학조치를 비난하자 윤교수는 박교수의 무정치적 문학관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충고를 한다. 이에 박교수는 자신의 문학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의를 방어하려는 윤교수의 태도에 분노한다.

박은 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다. 문학에서 정치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항상 자기와 담론한 것이 자기를 불구자로 만들어 이용하자는 수작이었던가. 생각하면 자기들의 위선과 행동에 맹종할 것 같지 않으매, 차라리 상아탑 속에 감금시켜 놓자는 음모였던가<sup>83)</sup>

김교수는 사임 이후 몸을 정양하려 고향에 내려가는데 박교수는 퇴학당한 학생인 민우식과 함께 김과 동행 한다. 김의 고향에서 박은 민우식과 함께 ‘소란한 조선 땅’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박교수는 정치성을 강요하는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느끼고자 하지만 이런 박교수의 바람은 읍 지주의 포악으로 인한 폭력사건에 휘말리며 끝나고 만다.

이후 박교수는 서울로 돌아와 동창이자 사업가인 강익주를 만난다. 그와 술을 마시는 도중 박교수는 색안경과 마스크를 쓴 우익 청년단체로부터 무차별 테러를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는다. 병원에 입원한 박교수는 결국 ‘타류’라는 제목의 소설을 구상하게 된다. 작품 내에서 이 소설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우익인사들의 폭력에 대한 환멸과 힘없고 순수한 좌익인물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소설 ‘타류’의 창작을 결심하는 과정을 보아 그의 소설이 편향된 경향성을 띠고 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박교수에게 김교수는 타류만을 보지 말고 ‘타류 속에 흐르는 청류’를 봐야할 것을 충고한다. 이는 당시의 좌익진영의 창작론인 혁명적 낭만주의와 결합한 사회적 리얼리즘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곧 김교수가 언

83) 이근영, 「타류 속을 가는 박교수」, 『한국소설의 얼굴-별을 헐다 외』, 푸른사상, 2006, 122쪽.

급하는 리얼리즘이란 사회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비판적 리얼리즘적 시도가 아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변혁 되어야 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적 현실 재현인 것이다. 이는 문학이 사회주의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의 실천적 방영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김명선의 「초료」는 식민지시대의 방황하는 빈곤 지식인을 다루는 소설이다. 실직한 빈곤 지식인 ‘나’는 해방 이후 밥값을 빌리고 일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선다. ‘나’는 우연히 ‘회색춘추복에 금시계줄을 늘인 신사’가 된 옛 친구 서정균을 만난다. 그는 백 원만이라도 빌려달라는 ‘나’의 부탁을 마침 가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방직회사에 취직이라도 시켜달라는 ‘나’의 사정도 거절한다. 처절한 ‘나’의 부탁을 거절한 서정균은 ‘나’에게 강연회에 갈 것을 급작스럽게 제안한다.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무어라도 떨어질지 모를 절박한 심정으로 강연회에 간다. 서정균은 강연회를 주최하는 ‘북조선 진상보고대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서정균은 강연회 주최자들에게 ‘나’를 소개하는데 서정균에게 굽신거리는 주최자들은 ‘나’의 차림새가 후줄근한 이유로 깔본다. 나는 주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하는 한편 서정균이 ‘큰 사업을 하면서 무엇이 답답해서 정치에까지 몸을 바치는’ 것인가 궁금히 여긴다.

결국 ‘나’는 해방 전 적극적인 친일파였으며 ‘나’를 포함한 조합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과수원을 자기 앞으로 돌려 먹은 서민달에게 찾아가 일을 달라고 사정한다. 그러나 세 번째 첩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서민달은 ‘월급이래야 담배값도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트린 채 사정을 거절하며 오히려 ‘나’에게 좌익이냐고 물으며 나를 압박한다. 결국 ‘나’는 서정균과 서민달의 이중성과 위선에 환멸을 느끼며 그들과 싸울 것을 결심하게 된다.

「초료」는 모두 8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나’의 독백이 직접적으로 서술되는데 그 내용은 이전 식민지시대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암울한 해방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다.

해방이란 어쩐지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예상하였든 것이었으나 -(중략)- 인심은 차라리 일본놈 시절보다도 점점 더 강박해지기만 하여 살어갈 길이 아득하니 도대체 이따위 놈의 세상을 어느 놈이 바랐드냐 싶은 그런 해방이었다.<sup>84)</sup>

작가는 빈곤 지식인 ‘나’를 통해 해방현실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런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서정균과 서민달이라는 부정적 인물을 제시한다. 이 둘은 기회주의자이며 자신은 호의호식하면서도 이전 동료의 간곡한 사정을 철저히 거절하는 무자비한 인간인 동시에 우익 이데올로기적 사상을 지닌 인물이다.

서정균은 G방직회사의 사장인 동시에 우익 정치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인물이다. 또한 서민달은 좌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편견을 지닌 부도덕한 부유층 인물로 그려진다. 서민달은 직업을 구하러 온 ‘나’에게 좌익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압박한다.

“좌요 우요 좌지?”

하고 엉뚱한 소리로 나를 한번 떠보려는 그 태도에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고 해방 전에 내가 무슨 뚜렷한 사상을 가졌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방 후 무슨 그러한 단체에라도 참견을 했을세 말이지 이건 아조귀에 거슬리는 소리다.<sup>85)</sup>

‘나’는 서정균과 서민달의 우익 정치성이 ‘과거에 얻은 재물과 새로 잡은 권리’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나’는 식민지 시대와 해방기에 얻은 부당한 이득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불의한 우익 인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한다.

나 홀로 괴롭고 억울한 일을 내 홀로 서민달이나 서정균이한테 맞닥뜨

84) 김명선, 「초료」,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400쪽.

85) 위의 책, 413쪽.

려 해결지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 남조선진상을 똑바로 해결지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서민달이의 길도 아니요 또한 서정균이의 길도 아니다. 그길은 못질러 나가는 길! 오죽 그 길! 나는 그리 가야 한다.<sup>86)</sup>

소설 초반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성향 없이 오직 눈앞의 살 궁리만 하던 ‘나’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사회 변혁 의지를 갖게 된다. 여기서 ‘서민달이의 길’도 아니고 ‘서정균의 길’도 아닌 ‘못질러 나가는 길’이란 해방기 기득권을 독차지 하는 우익 인사들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주의 개혁 의지의 모습인 것이다.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와 「초료」가 우익 정치성향을 지닌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형상화 했다면 김동리의 「지연기」는 반대로 부정적인 좌익 인물을 형상화하며 좌익 성향을 지니는 소설들의 좌편향적인 인물설정을 비판하고 있다.

주인공 백정후는 가난한 여학교 교사이다. 그는 전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미군들이 차를 멈추고 강제로 내리게 하여 소독을 하자 급한 마음에 불평을 한다. 정후의 불평을 들은 젊은이는 그의 말을 맞받아치며 이 모든 것이 우익지도자들 탓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후는 젊은이의 말에 불편을 느낀다.

그는 처음 그러한 정파적 의식까지는 없이 그저 불평은 불평대로 솔직히 말했던 것뿐인데, 그의 이 우연한 불평을 즉시 정파적 의식에까지 연장을 시켜서,<sup>87)</sup>

이 같은 정후의 불평은 해방기에 나타나는 불합리나 사회 문제들이 우익 정치 성향의 인사들 탓으로 모는 사고에 대한 반발심에 근거한다. 「지연기」에서는 당시의 좌익성향의 지식인소설이 비판한 우익 모리배 지식인 인물 유형을 거부한다. 김선생은 이러한 사고를 대변하는 좌익 모리배

86) 김명선, 앞의 책, 415쪽.

87) 김동리, 「지연기」, 『김동리 전집2』, 민음사, 1995, 42쪽.



지식인이다. 김선생은 해방 이전에는 친일적 행태를 보이다가 해방 이후 교내 비품도난 사건과 연루 된 책임을 물어 퇴직을 하게 된다. 김선생과 함께 비품도난 사건에 연루 된 선생들은 학생들이 좌익 운동의 탈을 쓴 김선생 복직 운동을 하도록 종용한다.

정후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 김선생의 복직을 주장하는 학생 운동이 명확한 증거나 명분도 없이 몇몇 선생들로부터 이용당한 것이라고 설득한다.

모리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해방기의 불합리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연기」의 문제의식은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와 「초료」의 문제의식과 같다. 그러나 「지연기」는 모리배 지식인이 곧 우익 인사라는 사유에 대하여 강하게 반격한다. 모리배 지식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우익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좌익 이데올로기 역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선생 복직 운동이 정후에 의해 무산되고 김선생이 상무이사로 있던 해방육영회가 해산되자 정후는 결국 김선생이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료인 정선생은 김선생이 이미 좌익진영을 통해 충분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패요? 그까짓 사회적으로야 실패든 말든 몇 갑절 더 실속만 채웠으면 그만이지 뭐, 게다가 그이는 이즘 좌익이 되어서 아무리 실수를 해도 사회에서 죄다 변명을 해줄 테니까<sup>88)</sup>

「지연기」는 좌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는 김선생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해방기의 모리배 지식인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얽힌 것이 아니라 그저 이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부분 해방기 소설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정후는 학생들과 토론을 하며 그들의 주장이 ‘몇 마디 표어 비슷한 것을 외쳤을 따름 그밖에는 그들이 제출한 요구 조건이란 것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여 외울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어 정후는 학생들의 ‘정치

---

88) 김동리, 앞의 책, 49쪽.



운동'보다 그들에게 한글과 국사를 가르치는 일이 더 긴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동맹 휴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연기」에서 그려지는 정치적 운동들은 그 자체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면의 불순한 의도를 통하여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해방기의 혼탁한 시대상은 정후의 아들 재혁이 디디티(소독가루)를 훔치다 미군에 걸린 모습을 보고 정후가 재혁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통해 증폭된다. 해방기 기회주의적 인간들의 입신에 환멸을 느끼는 정후에게 가난 때문에 디디티 도둑질을 하는 아들 재혁의 모습은 억누를 수 없는 감정적 폭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마지막 '김선생네 집 굴뚝 위 전깃줄에 걸린 채' 날아가지 못하는 새하얀 가오리연에 대한 묘사는 해방기 기득권을 차지한 모리배 지식인에 의해 희생되는 가난하고 양심적 지식인에 대한 상징인 것이다.

전홍준의 「새벽」에서 역시 기득권을 차지하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부정적인 지식인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인공 현호는 해방 이후 가장 진보적인 출판사 <조선문화사>에 취직하여 조선에서 쟁쟁한 저널리스트인 배준의 밑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배준은 타고난 사교수완과 시대사조를 예리하게 판단하는 식견으로 편집부를 능수능란하게 통솔하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번듯해 보이는 그의 이면에는 모리배적인 잔인함이 숨어있다. 그는 삼천 원 밖에 안 되는 적은 월급 때문에 봉투를 붙이는 야업까지 병행하는 늙은 박기자에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지 못하자 목을 자른다고 협박한다. 급료사정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급료가 일제히 올랐을 때도 자신의 급료를 늘리기 위해 박기자와 기타 여사원의 급료를 오히려 삭감한다. 배준의 이런 비리를 알게 된 현호는 괴로워하며 회사를 그만두려하지만 젊은 정치가 친구인 이진석은 현호가 기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유일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을 중용한다.

이제 그만둔다면 그들은 완전히 배준씨의 노예처럼 되어 혹시 배준씨가 요구하면 그들은 그들의 살이라도 떼어줄지도 모른다. 대체 이런 기계와

같은 인간들을 만드는 사회는 어떤 사회고, 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우리들인가,<sup>89)</sup>

현호는 이를 계기로 배준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을하기로 결심한다. 현호는 소설 초반에는 무정치성을 떠다가 모리배 지식인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정치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관점의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기자들을 모아 단결하고 파업에 들어간다. 배준이 요구를 묵살하고 일체 해고를 하면서 파업은 실패의 위기에 처하나 인쇄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자 상황은 역전된다. 결국 배준은 이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파업은 현호와 기자들의 승리로 마무리 된다.

이 과정에서 현호는 지식인의 모리적 모습에 대한 실망과 노동자들의 실천성에 대한 감명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는 앞에 언급한 지식인 비판을 위한 이상적 노동자 설정이라는 해방기 소설 특징의 한 예에 해당한다.

조선의 소위 명사라는 배준씨와 같은 지식인들은 대개 입으로는 허울쫄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사실 자본주의에 아첨하여 봉건적 인습과 일제 잔재를 그대로 지닌 채 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빨고 있는데 반하여 입으로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실천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노선을 걷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인간다운 아름다운 존재인가.<sup>90)</sup>

해방기 지식인소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치 성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도를 표방하는 일은 기회주의적 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좌우익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은 채 중도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작가들이 있었다. 염상섭은 식민지시대부터 문단의 양대 세력을 형성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노선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적인 노선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해방기에도 특유의 리얼리즘적

89) 전홍준, 「새벽」 『해방 3년의 소설문학』, 세계, 1987, 357 쪽.

90) 위의 책, 360쪽.

태도를 견지하여 중도적 관점의 지식인소설을 창작하였다.

염상섭의 해방기 작품 중 「이합」과 「재회」는 이북과 이남의 상황을 모두 경험하게 된 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향하게 되는 지식인에 대한 연작소설이다.

「이합」은 해방 이후 이북의 상황을 「재회」는 이남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두 작품의 내용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으로 염상섭은 해방을 만주 안동에서 맞았고 그해 10월에 신의주로 들어와 북에서 지냈다.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38선을 넘어 서울로 들어왔는데 이북에서의 6개월 가까운 생활이 하나의 소설로 형상화되어 나온 것이 바로 「이합」이며 월남 후 작가가 남과 북의 정세에 직접 겪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창작한 소설이 「재회」인 것이다.<sup>91)</sup>

「이합」에서 장한은 해방이 된 이후 처남 진호와 함께 만주에서 이북으로 넘어온다. 이북에 오고난 뒤 이남으로 가자는 처남의 제안에 장한은 ‘이만치라도 자리를 잡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며 거절한다. 그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북에 있는 처고모부가 군의 교육과장을 맡고 있는 덕택에, 선생 일을 구했기 때문이다. 높은 직책의 처고모부 비호 아래 있는 동안 장한의 아내 신숙은 적극적인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된다. 신숙이 열렬한 공산주의 운동가가 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서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은 뒷전이 되었고 여섯 살 난 아들 준식과 네 살 어린 딸은 매번 뒷방 색시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장한이 비난하자 신숙은 ‘세상은 해방이라는데 계집을 울가미를 씌워서 가둬 두지 못해’ 이러는 것이냐고 맞받아친다. 장한은 바람이 들어간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만 처고모부네를 포함한 주변의 시선과 이전의 정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장한과 신숙의 말싸움이 격해지자 신숙은 결국 집을 나가버린다. 장한은 신숙의 정치 활동이 ‘정말 주의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만큼 혁명 정신에 철저’한 것 때문이 아닌 독립 이후 정한의 보잘 것 없는 신세와 ‘시들어가는 청춘을 고이 늙히기가 아까워서’라고 비난한다. 그의 지적은 당시 이북의 극렬 공산주의자들의 허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91)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이념선택의 양상」,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 1990, 297쪽.

군의 교육과장인 처고모부의 압력 때문에 장한의 학교 동료 현과 교장은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의 불분명한 사상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당부하게 된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장한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무주임이 그의 면직처분을 주장할 지경에 이르자 동료 현은 ‘당에 들겠다, 당신 말씀도 다시 생각해 보니 옳다-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그를 설득한다. 그러나 장한은 이 같은 현의 설득을 거부한다.

“사상에도 모리(謀利)가 있음디까? 얼마쯤 연구라도 하구, 얼마쯤이라도 자기의 사상적 체계를 세워 놓고야 말이지 목전에 발등에 불이 떠러진다고, 네, 네 한 대서야 경찰에 붙들려간 놈이 고문이 무서워서 헛소리하는 것 같아서, 인텔리로서 양심이 허락할 수야 있어야지.”<sup>92)</sup>

장한의 말은 개인의 치열한 고민 없이 오직 이북의 사상적 탄압이 두려워 전향을 하는 지식인과 아무런 사상적 기반 없이 무비관적으로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인간들에 대한 비판의식의 반영이다. 장한은 자신의 애매모호한 사상성과 아내 방관에 대한 지탄이 심해지자 결국 이북을 떠나 고향인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재회」는 「이합」의 속편격인 작품으로 북한의 생활에 신물이 난 지식인 ‘장한’이 아내와 딸을 두고 월남하는 「이합」 이후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장한은 삼팔선을 넘은 직후 처남이자 친구이기도한 진호를 만난다. 진호는 정한과는 반대로 이남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이북으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단 말인가? 그래도 그 동안에 좀 자리가 잡혔을 테지? 이남에서 듣는 말야 데마도 많을 거요 일일이 준신할 수 없지마는……」

「내 말이 그 말일세. 이북에 앉아서 듣는 말야 뉘 말이 옳은지 종잡을 수 없지만 그래도 식량 사정만이라두 훨씬 낫다는데 자네만한 수단에 아

92) 염상섭, 「이합」,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339쪽.

무려면 되짚어 오다니!」 93)

장한과 진호의 대화를 통해 해방기 이북과 이남이 단절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대화를 통해 볼 때 이북과 이남의 연결 상태는 서로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고 들리는 소문들도 ‘준신’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후에 장한은 형과의 대화를 통해 ‘민중이 정치적으로 봉쇄를 당한 셈’이라고 말한다.

진호가 자신의 누이이자 장한의 아내인 신숙을 데리고 이남으로 오겠다고 말하자 장한은 이미 그녀가 ‘노선이 뚜렷한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남으로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그에게 진호는 이와 같은 분란이 ‘자네의 집 일’ 만이 아닌 ‘어느 가정’이든 있는 분란이며 ‘조선 전체의 문제’라고 말한다. 해방기 조선에서 정치성으로 인한 갈등 분위기가 이미 가족단위로까지 침투하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진호와 헤어진 장한은 형의 집에 찾아가기 전 여관에 묵는데, 그곳에서 이북과 이남 사이를 다니며 밀매를 하는 상인들을 만난다. 분단이라는 민족의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장한은 ‘모리배는 민족반역자’라는 당시의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장한은 해방 이후 성공하여 XX방직의 지배인이 된 친형 김명환을 만난다. 명환은 그가 아내를 두고 온 것이 ‘우리집안에’ ‘침보는 일’이라 말하며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장한은 해방기 같은 ‘커다란 전환기’의 ‘과도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변명한다.

장한은 알 수 없었던 이남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공부한다. 그는 ‘막상 와 보니 공상으로 그려 보고 인편에 듣던 「이남」과는 판판인 데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며 ‘이남은 이러다가는 모리배, 탐광오리에 쓰러지겠다고 혼자 분개’한다. 결국 그는 이북과 이남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런 와중 진호는 장한의 아내 신숙을 데리고 월남하여 장한에게 찾아가 간다. 장한은 신숙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지만 다음날 신숙은 다시

93) 염상섭, 「재회」, 『염상섭전집』 10권, 민음사, 1988, 119쪽.

장한을 찾는다. 장한과 신숙 부부는 다소 어색하게 대면하지만 장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기운을 얻은 신숙이 장판 일을 말없이 도우면서 둘은 화해를 하게 된다.

「이합」과 「재회」와 같이 해방기 사회의 정치적 대립이 가족단위의 문제로 그려진 소설로 김영수의 「혈맥」이 있다.

의사 이필호 박사는 △△우익정당의 요직에 있는 인물이자 철저한 우익 정객이다. 그는 며칠째 이어지는 외아들 이기호의 외숙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 일을 손 놓은 채 식사조차 거르고 있었다. 그런 그가 문득 아내 안씨를 불러 아들 이기호의 이름이 적혀있는 ‘삼국외상회의절대지지’<sup>94)</sup>가 적힌 좌익 뼈라를 보여준다. 이박사는 ‘신탁통치를 죽음으로써 반대한다는 성명서의 원고를’ 직접 쓸 정도의 신탁통치 반대론자이다. 그런 그의 외아들 기호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좌익 운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박사 내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다. 안씨는 아들 기호를 찾기 위해 돈암정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른 채 무작정 집을 나선다.

기호를 찾아 헤매던 안씨는 종로 사정목에서 신탁통치 반대 시위 행렬에 맞닥뜨리게 된다. 안씨는 그 행렬이 모든 조선 사람이 ‘따라 나가는 행렬’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기호의 일탈에 대하여 가슴 아파한다.

안씨는 「혈맥」의 갈등해소를 이끄는 핵심적 인물인 동시에 작품에서 여타 정치적 지식인소설과의 차별 점을 부여하는 인물이다. 소설 내에서 우익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이박사의 아내이자 좌익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이기호의 어머니이기도 한 안씨는 우익과 좌익의 두 인물에게 깊은 연민을 가지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정치적 성향을 갖는 인물이다. 안씨의 무정치성, 순수성은 아들과 남편에 대한 지극한 헌신과 급변한 사회에 대한 무지를 통하여 형상화된다.

이박사는 좌익 뼈라에 언급된 이기호가 자신의 아들임을 다시금 확인하

94) 해방기 당시 신탁통치의 찬반의 문제는 대표적인 좌우이데올로기 갈등의 원인이었다. 이는 용어적 혼란으로 이어졌는데 우익진영에서는 ‘신탁통치’로 좌익진영에서는 ‘삼국외상회의’로 불리지며 각각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신탁통치의 정식 명칭은 ‘모스크바 3국(3상) 외상회의(The Moscow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로 볼 수 있으며 구소련, 미국,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 이 회의 내용에서 한국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좌익과 우익의 용어적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시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고 자신이 ‘범의 새끼를 길렀’다고 느끼며 ‘자식 없는 샘’ 치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평행선을 그리던 부자의 관계는 아들 이기호가 회의를 하는 도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채 이박사의 병원으로 실려 오며 전환점을 맞는다. 기호를 봐달라는 간호부와 기호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이박사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냐’라는 말만 반복하며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는 이박사의 앞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문지방에 걸쳐 쓰러진 채 운다. 평생 처음 보는 아내의 이런 모습에 결국 이박사의 마음도 움직인다.

박사는 자기도 모르게 푸시시 일어났다. 왜, 어찌자고,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몰랐다. 저절로 일어서졌고, 저절로 일어선 것이었다.

박사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다. 이것도 저절로 나서진 것이요, 저절로 발길이 내킨 것이다.<sup>95)</sup>

작품의 마지막까지 총 여섯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저절로’는 혈연적 유대의 절대성을 의미한다. 이박사가 아들을 치료하는 행위는 아들의 정치 성향을 인정하거나 포용하려는 의식적인 것이 아닌 순전히 본능적인 것임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되는 것이다.

머리로는 아들을 거부하면서도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이박사의 모습은 「혈맥」을 관통하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적 경향의 차이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 곧 세대 간의 갈등을 이어주는 힘은 이성적인 설득이나 논쟁이 아닌 같은 피, 곧 가족이라는 동질감 회복에 있는 것이다. 이는 해방기 치열한 대립을 통한 정치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적 통합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작가적 주제를 이박사 부자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적 동질성에 기대는

---

95) 김영수, 「혈맥」, 『한국소설의 얼굴-잔등 외』, 푸른사상, 2006, 208쪽.



작가적 대안은 해방기 좌우 대립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일상적 차원의 해방기 삶 체험

역사적, 정치적 관점의 지식인소설들은 해방기 지식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사상적 변혁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부담감은 지식인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치사상을 제시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민중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작가 사고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식인이란 시대적 소명을 이루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내던져진 미약한 개인에 불과하기도 하다.

몇몇 소설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지식인의 모습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지식인의 일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작품에서는 거시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인의 역할 이전에 지식인들이 경험하는 해방기 삶의 실재적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곧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상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해방기를 소설적으로 재현하는데 있어 그 근본을 살피는 일이 될 수 있다.

되풀이되는 일상적 활동이 없을 경우, 어떠한 ‘사건’이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진부하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이 일상 위에서 개인은 ‘내일의 꿈’을 가꾸고, 조직은 새로운 ‘변혁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체의 동태에 있어서, 사건이나 변혁이 ‘상부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 일상적 활동은 그 ‘토대’라 할 수 있다.<sup>96)</sup>

이처럼 ‘상부구조’의 토대가 되는 일상성에 주목한 지식인소설에 해당하는 김만선 「한글 강습회」(1946. 7), 박노갑 「역사」(1946. 1), 안수길 「여수」(1945. 5), 허준 「평때저울」(1948. 1), 염상섭 「양과자갑」(1948.

96) 신중환, 「한국소설의 일상성」, 『동양학』 35호,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4, 83쪽.



6), 채만식 「역로」(1946. 6)를 살펴보고 해방기 지식인의 일상적 활동의 형상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만선의 「한글 강습회」는 해방 직후 지식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한 달 전 만주에서의 체험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공안국 사람이나 소련병’이 이따금 ‘치안유지를 위한 위협이나 경고를 위해’ 밤마다 헛충을 쏘아대고 있고 ‘돈을 뺏기는 일이 흔한 모양’으로 일어나는 일본인이 물러간 해방 직후 만주 치안상황은 극도로 불안하다. 이렇게 불안정한 만주 상황에서 지식인 원식의 가족은 ‘오늘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극심한 빈곤상황에 허덕이고 있다. 원식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피난민을 상대로 떡을 팔자는 아내의 제안을 거절한 채 학교로 간다. 떡을 팔아서 돈을 벌자는 아내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타방에서 들어온 굶주리는 피난민들’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원식이 자신의 가족의 빈곤 상황을 외면하면서까지 학교에 가는 이유는 ‘한글 강습회’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보다 피난민과 만주 동포들을 위하는 이타적인 원식의 모습은 해방 이후부터 생겨난 것이다.

팔월 십오일 이전의 원식은 돈을 잡아 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것은 너무나 가난한 때문이었으나 그 결과는 또한 가난한 월급쟁이기에 돈을 벌어 보지도 못했고 자칫했다면 인간으로서까지 타락할 뻔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신기하다고 할 만치 돈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sup>97)</sup>

해방을 통한 원식의 태도변화는 극단적인 것이어서 ‘해방 직후 폭도들에게 부지깽이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살림살이를 약탈’당한 비극적 상황에서도 ‘알뜰히도 위하던 살림살이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살림도 그다지 근심하지 않는’ 태평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식의 변화는 해방에 대한 감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식은 극단적인 사고

97) 김만선, 「한글 강습회」, 『압록강』, 깊은샘, 1988, 135쪽.

전환을 통하여 당시 지식인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이를 맞이하는 지식인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해방의 감격은 인생의 모든 면을 변질시켰다고 원식은 굳게 믿는다.

한글 강습회를 계획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판단을 근거로 한다.<sup>98)</sup>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원식의 감격과 기대는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 그가 준비한 한글 강습회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이다. 청강인원이 너무 많을 때를 대비하여 도움을 청해둔 친구 훈은 ‘광고가 아마 불철저’했다는 말로 원식을 위로한다. 그러나 원식이 생각하는 한글 강습회의 취지는 일반 민중을 깨우치는 것이 아닌 민중을 지도하는 입장의 민간단체 ‘직원이나 각 청년단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원식은 민중을 지도하는 입장의 지식인 청년들이 ‘에’와 ‘의’조차 구별 하지 못하면서 배우려는 노력조차 없이 민족을 위한다고 자처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 그렇기에 원식이 생각하는 한글 강습회의 실패는 광고의 철저, 불철저와는 상관없이 민중을 위해 활동을 한다고 자처하는 단체들의 기본자세에 대한 물이해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훈은 만주 장춘의 사회가 ‘불안 하고 우울’한 상황임을 상기시키며 한글 강습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킨다. 원식은 훈과 헤어지고 ‘저마다 불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훈의 말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해방 이후 만주 사회의 혼란이 ‘민성을 무시하는’ 민간단체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고국으로 돌아만 가려는 동포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해주려고는 않고’ 허영과 향락, 방자한 생활에 빠져있는 민단에게 분노하며 강습회에서 실패한 울분을 민단 간부들에게 쏟는다. 이는 해방 이후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모리배 지식인들 때문이라는 사고의 귀결로 지식인소설의 해방기 이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박노갑의 「역사」는 해방 이후 젊은 농촌 지식인의 서울상경과 방황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만오는 ‘서울서 외로이 떨어진 남쪽 궁벽한

---

98) 김만선, 앞의 책, 136쪽.

촌락'에 사는 지식인 인물이다. 그는 해방이 되자 '그만큼 똑똑하면 이런 촌구석에 묻혀'있으면 안 된다든지 '도회로 가는 것이 옳다' 등 서울 상경에 대한 주변의 부추김을 받는다. 만오의 아버지 역시 그에게 '조선의 장래'를 생각하여 서울로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결국 만오는 이러한 주변의 권유로 서울에 가게 되는데 막상 그가 경험한 해방 서울의 환경은 그에게 좌절을 안겨준다.

정치를 좋아하여도 줄을 잡지 못하여 줄을 잡으려 다니는 정치 지망자뿐이 아니었다. 파산당한 일본인 세간사리 찌끼 사러다니는 신사 숙녀뿐이 아니었다. 일터 잃은 노동자가 높은 물가에 방황하는 것뿐이 아니었다. 일확천금, 돈 가진 사람의 꿈무늬를 슬며시 노리는 소매치기뿐이 아니었다. 쌀 가지고 온 시골 농부뿐이 아니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왔으니 왔고, 가니 가는 한가로운 사람들도 섞이어 있는 모양이었다.

만오는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였다.<sup>99)</sup>

만오는 가입하여 활동할 정당을 찾지만 번번히 거절당한다. 그는 이미 서울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자기 따위의 명함은'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처절히 체감한다.

그렇게 수일을 돌아다닌 그에게 같은 방 친구는 민중을 무시하며 '끼리끼리' 뭉치는 서울의 정당 정치에 대하여 비판 한다. 만오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민중'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는 민중을 외면한 채 '똥어놓고 지배만 하려'드는 정치가들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만오는 마을청년들을 모으고 야학을 시작하는 첫 강연을 통하여 '서로 선생이 될 것'을 주장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옛날 어느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농민의 역사를' 지어나갈 것을 희망하게 된다.

허준은 해방기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 중 한명이다.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은 대부분 유사한 궤도를 그리는 데 반하여 허준은 자신

99) 박노갑, 「역사」,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35쪽.

만의 독특한 문제의식을 통해 독자적인 해방기 소설세계를 구축했다. 이에 대하여 김윤식은 “해방공간의 풍속에서도 미동하지 않는 성역”으로 평가하며 허준의 특징을 “해방공간에서도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계속 회의함에서 찾을 수 있다”<sup>100)</sup>고 하였다.

이 같이 자신만의 소설 세계를 구축한 허준의 해방기 대표적 소설 작품들은 「잔등」(1946. 1~6)과 「속 습작실에서」(1948. 7), 「평대저울」을 들 수 있다.

「잔등」에서는 해방기 귀환의 과정에서 몰락한 일본인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이중적 내면이 그려지고 있으며, 「속 습작실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치료되지 않는 식민지시대의 고독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평대저울」은 해방기 빈곤 지식인의 삶을 다루는 소설이다. 그러나 해방기의 빈곤문제를 피상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원인에 모리배 인물들을 상정하는 일반적인 전개의 지식인소설들과는 다르게 「평대저울」은 객관화된 리얼리즘적 시각으로 구체적인 해방기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작가 ‘나’는 해방 이후 겨울이 되었는데도 김장을 담그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나’는 그런 해방 현실을 비판한다.

혹 그러는 군들 가운데에도 세상을 정직하게 사러가는 사람이면 으레 권으로 누구나가 느끼는 작년이란 재작년 해방되든 해방 못했든 해요 금년이 또한 그 작년만 못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세상에 사러갈 수는 있으며 해방이란 것은 무엇있느냐<sup>101)</sup>

해방 이후 매년 살림이 어려워지는 ‘나’의 사정을 알게 된 잡지 기자는 뜻밖의 원고 청탁을 요청한다. ‘나’는 ‘그까진 김장썸으로 목메어 하는 줄 알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람을 낚자는 수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사정과 기자의 인간성을 생각해서 청탁을 맡는다. 기자가 의뢰한 원고는 그 분량이 육천 자 이내로 적은 편이었는데 ‘나’는 그러한 분량의 제약에 감히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 원고청탁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길, 전차를

100) 김윤식a, 앞의 책, 483-484쪽.

101) 허준, 「평대저울」,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344쪽.

기다리는 중에 그는 결국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일이라도’ 쓰자고 자신과 타협한다. 그는 김장을 하지 못하여 낙담하는 아내를 어른 일과 결국 원고 청탁을 받아 동치미라도 담그게 되어 아내와 화해하게 되는 행복한 결말을 갖는 콩트를 쓰기로 한 것이다.

그 흥겨움은 정말 미움에서가 아니라 지금의 세상이 어떠한 세상임을 가히 아는 사람과 더불어 한자리에서 자며 사라가는 한 가난한 집 안해의 체념과 따라서 또 어찌는 수도 없는 만족의 얼굴이었더라는 세상에도 흔하고 평범한 일종의 속임수에서 끝이 나는 이야기이었다.<sup>102)</sup>

그런데 작가 ‘나’는 이러한 소설의 결말이 세상에 흔한 ‘일종의 속임수’라 여긴다. 즉 ‘나’는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해방 이후 나아진 삶의 모습과 희망적인 표상들이 거짓이라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소위 열다섯 장짜리 콩트로서는 과히 테에 벗어나지’ 않는 작품으로 적당히 완성하리라는 마음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의 콩트의 내용대로 아내에게 돈을 주려하지만 이미 가방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원고료를 모두 소매치기 당한 것이다. 소매치기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나’는 김장값을 벌기 위해 타협했던 자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붙잡아서 묘사해 내는 힘을 기르는 길로만 정진 하자’는 리얼리즘의 길을 저버리고 ‘하찮은 가난뱅이 살림썸’에 돈을 벌려는 마음으로 거짓 소설을 팔아먹을 궁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써야하는 콩트의 결말을 ‘동치미썸은 담가 식구가 모두들 즐거워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못하게 된 사실대로’ 쓰게 되는데 이는 ‘구태여 쓸데없는 윤색을 베풀어서 현실적인 것의 일면에 눈가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작가의 리얼리즘적 현실반영 태도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속임수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려는 리얼리즘 작가의식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

102) 허준, 앞의 책, 348쪽.

그렇게 소설을 완성하여 회사로 가지고 간 ‘나’는 자신이 쓴 원고 위에 아내의 글을 발견한다. 아내는 김장을 못하는 집이 우리 집만도 아니거든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공연히 창피만 당할 것이 염려된다는 글과 함께 소매치기 부분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이를 보고 ‘나’는 불행한 해방기 현실을 부정하는 아내의 ‘단념의 덕’이 자신의 행불행을 올려놓은 평대저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여기게 된다.

안수길의 「여수」는 해방을 통해 집안이 몰락하였으나 이에 절망치 않고 꾸준히 생존해나가는 ‘황숙’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해방기 지식인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여수」의 주인공 박철은 해방 이전 만주에서 살았던 지식인이다. 그는 해방이 되자,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고픈 마음에 병이 아직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귀국한다. 해방 조국에서 문화적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해방 이후의 조선의 상황은 가혹하기만 했다.

좁은 문화계였다. 그 좁은 문화계에서도 철의 교우 관계는 극히 좁은 범위였다. 그 좁은 범위 안에서까지 친구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지나지 않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해방 삼 년의 현실이었고, 철이 앓는 동안에 빚어진 가혹한 현실이었다.<sup>103)</sup>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열이 팽배했던 해방기 상황에 박철은 ‘한 달이 못 가는 사이에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어그러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해방 이전에 가졌던 박철의 해방에 대한 기대는 예전 동료들의 변심과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가혹한 현실 때문에 무기력증으로 변모한다.

그런 와중에 철은 뜻밖에 통영으로 출장 갈 일이 생기게 된다. 철은 해방기 암울한 현실에 무기력해진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줄 것을 기대하며 통영으로 떠나게 되고 그 길에서 만주에서 알았던 히라야마

---

103) 안수길, 「여수」, 『한국소설의 얼굴 별을 헨다 외』, 푸른사상, 2006, 141쪽.

상을 만난다. 그는 철에게 황숙이 부산에서 빈대떡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황숙은 해방 전 만주 ‘유력자요, 명사요, 재산가인 황도점의 딸’로 박철이 황도점의 신문사에 일할 당시 여름 한 철 교제한 일이 있는 인물이다. 황숙은 신문사의 결손을 메꾼다는 명목으로 신문사에 입사하나 정작 출근한 숙은 신문사 일에는 무관한 채 독서에만 열을 올린다.

수판과 숙! 철은 이 극단과 극단의 대조를 흥미로 관망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숙은 수판을 쥐는 법도, 수금원을 독려하는 법도, 장부를 뒤적이는 일도 없었다.<sup>104)</sup>

박철은 숙으로 상징되는 ‘생활’과 수판으로 상징되는 ‘생존’이 어떤 식으로 조화될 수 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이에 황숙은 ‘사람이 수판 속에서 산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생존보다 난 생활이 더 중’하다고 말한다. 즉 황숙의 세계는 물질적 삶의 요건인 ‘생존’이 제거된 정신적 삶의 요건- 곧 ‘생활’만이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관념공간이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황숙의 세계는 무너지게 된다. 아버지 황도점이 민중 재판으로 처형되자 가족은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고 황숙의 남편은 대일밀수로 돈을 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불잡혀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집안은 몰락하게 된다. 현실과 무관한 관념적 세계에만 머물던 황숙은 가혹한 현실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이전 생활 곧 관념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

저는 비로소 꿈을 깬어요.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부모의 재롱감이었고 남편의 위안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권세와 돈에 묻혀 세상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sup>105)</sup>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황숙은 자신의 이전 세계 곧 ‘생활’만이 존재하는 삶이 거짓되었다는 자각을 통해 그토록 멸시하던 ‘생존’이 있는 ‘수판

104) 안수길, 앞의 책, 151쪽.

105) 위의 책, 159쪽.



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생존을 위하여 '빈대떡 영업을 하는 동안' 황숙은 자신이 이제야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며 생존이 어느새 '생존이 아닌 생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의 생활이란 땅을 디디고 선 것이 아니었어요. 네 식구 입에 풀칠하기 위해 시작한 이 업을 하는 동안 저는 생존이 아닌 생활을 발견했어요. 참된 인간, 땅에 발을 디딘 인간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예요. 먹고 사는 것의 쓰라림을 이해했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그 생활력이 존귀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신적인 생활의 기초가 이 생활력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sup>106)</sup>

황숙은 물질적 삶의 요건인 생존과 정신적 삶의 요건인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는 생활력, 생존의 존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정신적인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조화로운 해결책인 것이다.

이어 황숙은 한 때는 해방을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해방 덕에 '불순했던 것',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 청산된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다. 황숙이 식민지시대의 단절과 도래할 새 시대에 대한 기대를 철에게 말하자 곧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갓난아기는 해방기 소설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전의 해방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sup>107)</sup> 결국 철은 자신이 해방 이후 서울에서 느낀 좌절이 생존에 대한 집착으로 이전에 바랐던 생활에 충실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수」에서 나타나는 생존과 생활의 조화를 통한 해방 현실의 좌절 극복 과정은 안수길에 있어서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방 후 첫 작품 「여수」 발표 이후 안수길의 소설의 방향은 해방 특수 현실에 주목하는 대신 풍속소설이나 연애소설 차원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양과자갑」은 해방기 지식인의 빈곤과 방황을 그리고 있다.

---

106) 안수길, 앞의 책, 160쪽.

107) 염상섭의 「귀환일기」에서 귀환과정에서 태어나는 두 아기와 염상섭의 「해방의 아들」에서 태어나는 홍규의 아들 '건국이'가 이러한 상징의 예이다.



주인공 영수는 미국에 유학경험이 있으며 영어로 소설과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능숙한 지식인이다. 해방 이후 조선은 미군정 아래에 놓이게 되고 영어를 통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영수는 이런 기회들을 모두 거부한다.

그는 해방 이전 아무 까닭 없이 미국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 경력이 있다. 해방 직전에 풀려난 그는 울분에 술로 세월을 보내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외가 쪽 인연이 있는 철원으로 간다. 해방 이후 철원이 이북이 되자 영수의 가족은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서울로 넘어오게 된다. 그렇게 파산하게 된 영수는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셋집살이를 하게 된다. 영수의 아내는 그가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집도 얻고 출세하길 원하지만 영수는 이러한 아내의 소망을 등한시 한 채 몇 시간 대학 시간강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집에서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

“내 영어는, 어디, 집 얻어대라구 배우고, 통역하라구 배운 영어던가? 통역에나 써먹자고 미국 가서 공부했을라구……” 108)

이런 와중에 안집 주인의 둘째 딸로 여겨지는 김안라는 영수 부인에게 간단한 영어 문서 번역을 맡긴다. 영수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도 아내의 간절한 사정으로 인해 번역하게 된다. 문서의 내용은 초동의 적산가옥을 안라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미군에 줄을 서서 일본인의 적산가옥을 차지하는 행태에 대하여 ‘재주가 좋다며’ 비난한다.

영수의 이 같은 비판적 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과 친미적인 활동으로 기득권을 차지하는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지식인의 사고의 형상화이다. 당시 미군정은 ‘부일협력자 및 민족반역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안’ 같은 법안을 통과 시키며 친일 세력에 대한 옹호와 기용 방향의 정책을 펼쳤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친일 정책은 지식인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질책

---

108) 염상섭, 「양과자갑」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2』, 돌베개, 1988, 316쪽.

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었다.<sup>109)</sup> 결국 영수는 안라의 다른 부탁들을 거절하게 되고 중간에 끼인 영수의 아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수의 아내는 결국 중학 오년생인 딸 보배에게 번역을 부탁하게 된다.

어느 날 안집으로 많은 양의 사치스러운 양식 가구들이 배달 온다. 이 가구는 못생긴 안라와 달리 미녀인 안집 색시에게 미군 리차드슨이 보낸 것으로 보배는 안집 색시의 부탁으로 리차드슨이 양가구와 함께 보낸 편지를 번역하게 된다. 보배는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안집 색시에게 ‘미쓰 리’라고 쓴 것과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에서 혼란을 느끼며 의문을 품게 된다. 이후 안집 색시는 보배의 번역에 감사함의 표시로 양과자를 선물한다.

집에 있는 양과자를 의아하게 생각한 영수는 양과자의 출처에 대하여 묻게 되고 영수의 아내는 영어 덕이라고 말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내용을 들은 영수는 ‘자라는 계집애’가 ‘그 따위 편지’를 읽게 한 아내에게 분노하며 양과자갑을 마당에다 집어 던진다. 영수아내는 안집의 눈치 때문에 마당에 떨어진 양과자를 ‘도적질’ 하듯 주워 온다. 어머니의 행동을 원망하는 보배에게 아내는 현재의 셋집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면 어쩔 수 없이 안집의 눈치를 봐야 함을 하소연 한다.

“그럼 어찌니! 누가 물건이 아까워서 그러니? 먹는데 더러워 그러니? 내가 아쉬니까 그럴지! 당장 내쫓기면 갈 데가 어디냐?……이 과자갑을 제 울 안에서 보고, 가만 있을 사람은 누구요, 그 마음은 어떨겠니? 남욕을 봐두 체면이 있지…….”<sup>110)</sup>

「양과자갑」에서 나타나는 영수는 강직하고 세속에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간 일 때문에 식민지시대 적지 않은 수모를 당하였으나 해방 이후 자신의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당시 친미 세력에 대한 격렬한 거부

109)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 428쪽.

110) 염상섭, 앞의 책, 336쪽.

감의 반영으로 결국 양과자를 던지는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수의 강직한 성품은 일면 폐쇄적이고 비인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수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가족 전부를 빈곤 상태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셋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만을 위해서 안집에서 성의로 준 양과자를 마당에 던지는 모습은 바로 영수의 신념의 폐쇄적 이면인 것이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주을 수밖에 없는 아내의 모습은 이와 대비되며 애처로운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채만식의 「역로」는 해방기의 다양한 양상들을 기차역과 기차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 내에서 그려낸 작품이다. 「역로」에서는 채만식 해방기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식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기차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김군과 ‘나’의 대화는 친일 지식인 처우 문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민족의 죄인」의 김군과 윤군의 논의와 유사하며 누가 권력을 잡게 되든 나라의 덕을 볼 일은 없다고 말하는 늙은 농민은 정치 허무주의에 젖어있는 「논 이야기」의 한생원과 닮아있다. 신사와 잠바 청년의 갈등은 기성세대와 대립하는 신진세대의 모습을 다룬 「도야지」와 유사한 면이 보이고 미군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객차를 다섯 칸이나 차지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해방기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미스터 방」에서 나타나는 시각과 유사하다.

주인공 ‘나’는 집안에 병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급행 기차표를 끊으려 줄을 서있는 중 친구인 김군을 만난다. 김군은 ‘나’가 이틀을 꼬박 써서 어렵게 끊은 기차표를 야미표(암표)로 단박에 구한다. 이런 해방 현실을 씩씩해 하던 차 ‘나’와 김은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한 중학생과 그의 형, 혹은 아버지로 보이는 신사의 대화를 듣는다. ‘나’는 중학생이 식민지시대의 잔재에 피해를 입은 것을 걱정하고 김은 ‘나’의 친일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두 친구는 친일 지식인의 처분과 참여의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기차에 탄 나와 ‘김’은 늙은 농민, 잠바 청년, 시골 신사, 월급쟁이와 동석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다. 「역로」의 전반적인 구조는 별다른 사건 없

이 다양한 인물들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있다.

‘언제 참 우리나라 정부가 되나요’라고 묻기 시작한 늙은 농부의 질문을 시작으로 객차의 다양한 인물들-이승만을 무턱대고 지지하는 늙은 농부와 좌파적 성향을 띠지만 공산주의가 아직은 조선에 무리라고 생각하는 잠바 청년, 그리고 좌파 지식인 김군까지-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상호 대화한다. 이들의 대화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시골신사와 소비에트 연방이 되더라도 국력을 키우고 구소련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까지 합세하며 점차 증폭된다. 「역로」의 다양한 인물들은 각각 계층, 이데올로기, 세대를 대표하며 그들이 갖는 주된 사고를 대변하고 있다.

기차가 천안에 이르자 양복쟁이 청년이 기차에 탄다. 그는 부산에 사는 월급쟁이로 부산의 쌀값이 터무니없게 비싼 까닭에 쌀을 사러 천안까지 온 것이다. 부산의 쌀값이 오른 이유는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쌀이 팔려 나가는 대일밀수가 성행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시골 신사가 ‘소수의 모리배놈들의 짓’ 때문이라고 말하자 월급쟁이 청년은 그의 이러한 사고가 잘못이라고 알려준다.

“큰일야. 그게 모두 소수의 모리배놈들의 짓으로 민족이 전체가 곤란을 당하구 건국에 방해가 되구 하니.”

“속 모르는 소리 마슈. 모리배가 한목 어데서 쌀을 사가지구 부산이면 부산으로 여수면 여수루 가 일본에다 팔아먹구 하나요?”

“?.....”

“한 말 두 말 최고 한 가마니까지 해 짚어지구 일본 가차운 항구를 매일같이 수천 명씩 몰려가는 게 누구들인데요?”

“야미꾼들일 테죠.”

“농민들예요. 각지에서 농민들이 등으루 저다 파는 쌀을 밀수꾼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 굶어모아 가지구 일본으루 내는 거예요.”

“농민들야 시세가 좋니깐 내막은 모르구서.”

“이 양반이..... 이 양반두 아마 서울서 정치하는 양반인가 보군. 당신

네들은 입만 벌리면 농민은 순진하구 불쌍하구 애국적이구 하다가 떠들지만 그래가지곤 정치 못합넌다. 111)

이 대목에서 작가가 월급쟁이 청년의 입을 통해 ‘서울서 정치하는 양반’이 가진 사고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로 암울하고 혼란했던 해방기 현실의 문제 원인이 ‘소수의 모리배’에게만 있다고 믿는 단순한 사고이고, 둘째로 해방기 농민을 관념적이고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이다. 해방기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은 결코 단순 할 수 없다할 것이다. 미군정의 실정과 좌우 이데올로기 극심한 대립, 해외파와 국내파의 대립 그리고 이런 혼란을 통해 한몫 하려하는 하층 민중 등, 해방기 혼란상의 원인은 상부 계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층 계급에까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에 의한 편협한 사고는 이와 같은 총체적 원인 분석을 피하고 단순한 사고를 강요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해방 현실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역로」에서 나타나는 해방기 정치인,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월급쟁이 청년은 ‘희떠운 민주주의 소리 집어치구 쌀을’ 달라며 해방기 정치의 비실제성, 비민중성을 비판한다. 또한 해방 이전 ‘합치해서 대항’했던 좌우익이 갈라져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에 대하여 비판하며 민족 정책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역로」의 마지막은 대전에 도착한 기차에 다섯 칸의 좋은 객차가 달렸으나 이는 모두 미군을 위한 것으로 조선인은 하는 수 없이 기차 지붕에라도 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려진다. 미군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김군은 미군에 대한 ‘협조가 해계모니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우리 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 ‘돈 몇천 원이나 벼 몇 섬씩을’ 아끼다가 ‘민족 천년의 대계’를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는 해방기는 우리 민족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눈앞의 이득에 연연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111) 채만식, 「역로」, 『채만식 전집8』, 창작과 비평, 1989, 287쪽.

작가의 현실인식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은 나름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기의 혼란은 끝내 자정되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이라는 결과를 통하여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제 3 장 지식인 주인공의 갈등양상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인식

### 1. 반성과 참여의식

해방이후 우리민족이 대면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을 지식인들은 “어떤 형태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는 개척시대로 활용”<sup>112)</sup>한다. 미·소 강대국에 의해 분열되어가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해방기 지식인들에게는 새나라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대한 참여 요구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참여 욕구는 ‘그간 억눌려 온 정치적 열정을 폭발시’<sup>113)</sup>킨 결과이며 식민지시대의 압력에서 한 순간에 벗어나며 만끽한 자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이러한 지식인의 참여 욕구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반영되고 있다.

해방 전부터 그리던 서울이었다.

일본이 패망한 뒤 서울에 모여서 일을 해보자, 문화적인 일을 해보자  
-114)

장한이는 이때껏 일제 압박 밑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야심, 공명심, 분발심이 맹연히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깨다랐다.<sup>115)</sup>

하지만 해방기는 나라 만들기에 대한 지식인의 참여 시기이기 이전에 식민지시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해방이후 일제잔재 청산과 새 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는 전 민족이 염원하는

112)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 15쪽.

113) 신형기a, 앞의 책, 9쪽.

114) 안수길, 앞의 책, 139쪽.

115) 염상섭, 「이합」,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 돌베개, 1988, 341 쪽.



바였지만 특히 지식인 계층에 더욱 강렬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sup>116)</sup>

해방기 지식인들의 참여와 반성의 갈등상은 해방기를 식민지시대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해방 전후」, 「도정」, 「민족의 죄인」, 「귀국자」와 같은 소설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들에서 해방기 지식인의 행위와 사고는 식민지시대와 결부되어 나타나며 이는 ‘반성’의 촉구로 형상화 된다.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해방기의 참여 욕구와 부딪치며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양상은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작가 현실인식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소설의 반성과 참여의 갈등 모습은 ‘어디까지 반성해야하며 어디서부터 참여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결책인 것이다.

「해방 전후」에서 현은 해방 이전 일제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소극적 처세주의를 통한 친일을 하게 된다. 그런 중 조선이 해방을 맞이하여 현은 서울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이 독립된 순간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고 기회와 눈치만 살피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해방의 감격보다 더한 충격을 받는다.

현이 생각하는 해방은 이전 식민지시대의 과오를 모두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맞이하는 혁명적 시대이다. 이러한 혁명적 시대에 식민지시대이나 어울리는 ‘소극적 처세주의’나 김직원의 봉건적 사고는 철저히 배척되어야 하는 구시대적인 것이 된다.

소극적 처세주의는 해방 이전 현의 모습이었고 김직원의 봉건적 사고 역시 현이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를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로 몰아가는 연유가 된다. 결국 현은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단체인 ‘문협’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시대에 대한 강한 반발의 결과이자 그만의 식민잔재청산의 방법인 것이다.

지식인 현에 있어 식민지시대에 대한 반성이란 이전의 구시대적 사고들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시대적 사고의 주된 내용은 ‘소극적 처세주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인 행동, 곧 참여를 강조하게

---

116) 박재섭, 앞의 책 91쪽.

되는 것이다.

결국 「해방 전후」 주인공 현의 전향은 참여를 통한 식민지시대 반성의 결과이다. 작품 내에서 해방 이전 친일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완벽히 삭제된 이유도 현의 ‘참여를 통한 반성’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귀국자」의 혁은 「해방 전후」의 현처럼 해방 이전 일제의 폭력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소극적인 처세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지식인이다. 그 역시 해방된 조선에서 강렬한 정치 참여 욕구를 느낀다. 그러나 혁은 「해방 전후」의 현처럼 적극적인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해방기 조선에는 이미 수많은 지식인들이 정치적 운동을 하고 있었기에 그가 정치운동을 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혁은 반성과 참여의 갈등을 조화하지 못한 채 식민지시대의 죄의식과 친일 전적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다. 혁의 소극적 처세주의는 식민지시대를 걸쳐 해방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혁의 모습은 해방이라는 급격한 변화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도정」은 지식인의 반성과 참여 갈등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는 소설이다. 주인공 석재는 끊임없이 반성과 참여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 같은 갈등은 기철을 통해 더욱더 증폭된다. 해방 이전 석재는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나 남을 위해 정성과 정열을 바치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기철은 그의 고백을 그저 ‘신경쇠약’과 ‘결백증’으로 치부한다. 해방 이전 광산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던 기철은 해방 이후 뜻밖에도 공산당 최고 간부가 되어 있다. 석재의 갈등의 극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기철이 해방 이후 어떠한 반성도 없이 버젓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문득 기철이 눈앞에 나타난다. 장대한 체구에 패기만만한 얼굴이다. 돈이 제일일 땐 돈을 모으려 정열을 쏟고, 권력이 제일일 땐 권력을 잡으려 수단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다. 어느 사회에 던져두어도 이런 사람이 불행할 리는 없다. 그러나 여기 한 개의 비밀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영예로

워지면 질수록 흉악해지는 비밀이었다. 대체나, ‘겉’이 그렇게 충실하고야, ‘속’이 있을 리가 없고, 속이 없는 사람이란 외곽이 화려하면 할수록 내부가 부패하는 법이었다.<sup>117)</sup>

기철은 ‘모리배 지식인’의 전형이다. 모리배 지식인은 해방기의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인물 유형이다. 이들은 친일과보다 더 강한 강도의 비난을 받는다. 해방기란 그토록 염원했던 이상이 도래한 시기로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오로지 사익을 위하여 민족에 해악을 끼치는 모리배는 친일과보다 지탄받아야 한다는 현실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대부분의 해방기 소설에서는 해방 이후 나타나는 비참하고 불합리한 현실이 이러한 모리배 지식인들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초료」의 서정균, 「새벽」의 배준과 M, 「어떤 친구」의 P와 K, 「노래기」의 김학수, 「도정」의 기철,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의 윤교수같은 인물들이 해방기 모리배 지식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정」은 참여에 대한 강한 욕망을 갖고 있지만 이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반성하고 결국 자신의 소시민성과 싸우기로 결심하는 지식인 석재와 어떠한 반성과 자기성찰 없이 참여로 나아가는 기철의 모습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식인 인물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은 참여와 반성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해방기 지식인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지식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죄인」은 ‘나’의 반성을 촉구하는 지식인 윤과 참여를 촉구하는 김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지식인의 반성과 참여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형상화 된다. 윤의 논리는 친일 지식인의 처벌과 불참을 통한 반성에 그 초점이 맞춰져있다.

“제법 보꼭에다 목을 매구 늘어지던 못한다구 할값이라두 죽은 듯기  
아웃 소리 말구 처박혀 있거나 했어야 할 게 아냐? 그런데 글썄, 그러기

---

117) 지하련, 앞의 책, 229쪽.

는 커녕 8.15 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정말 나서야 할 사람보담두 저이가 먼저 나가자구” 118)

그에 비하여 김은 식민지시대를 견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생존을 위한 친일을 했기 때문에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주장한다. 김과 윤의 논쟁은 얼핏 참여 논의를 대표하는 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나 결론적으로 ‘나’는 김의 변호가 ‘용색스럽고 공극투성이’였다고 말하며 반성의 논의를 대표하는 윤의 승리를 인정한다. 이는 작가의 심리는 김의 주장에 근접하나 주변의 질책이나 본인의 자책감은 어쩔 수 없이 윤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죄의식 혹은 반성의 문제가 자기변호, 참여의 문제보다 무겁다는 작가적 판단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 반성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민족의 죄인」은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참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설의 지식인 주인공이 윤과 김의 대화 이후 모든 것을 단념하고 극단적 반성의 길, 곧 낙향과 은둔을 할 것에 대한 의사를 아내에게 표하자 아내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당신 죄지셨잖아요? 그 죄, 지신 채 그대루, 저생 가시구퍼요?”  
안해가 나를 죄인이라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울면서 그 말을 하였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여기려고 아니하는 이 늙아빠진 안해가, 나는 존경스럽고 고마웠다.

“당신야 존재가 미미하니깐 이댐에 민족의 심판을 받지두 못하실는진 몰라두, 가사 받아서 벌을 당한다구 하더라도, 형벌이 질 속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119)

아내의 논법은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사회 활동을 접는 극단적 반성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잘못을 갚는 방향의 자기반성적 태도가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

---

118) 지하련, 앞의 책, 447

119) 채만식, 「민족의 죄인」, 앞의 책, 455쪽.

를 통한 반성'의 가능성은 「해방 전후」의 현, 「귀국자」의 김인수 같은 지식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며 식민지시대의 반성을 넘어 참여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한 방법론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반성과 참여가 갈등하는 지식인소설의 현실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소설들은 모두 소극적 처세주의적 태도로 친일활동을 하게 된 지식인을 일제 폭력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이는 주인공 지식인을 작가 본인과 동일시하여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면 변명적 어조로 자신들의 친일에 대한 근거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일제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고 있다.

현은 정말 살고 싶었다. 살고 싶다가보다 살아 견디어 내고 싶었다.<sup>120)</sup>

혁은 정말 겁이 났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른 뒤에 올 일도 겁이 났지만 그런 꼬임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도 그랬다.<sup>121)</sup>

결국 강의 손을 잡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무서웠거든. 그렇지! 전처럼 어느 신문이 있어 영웅처럼 기사를 취급할 리도 없었고 이젠 한번만 걸리게 되면 귀신도 모르게 죽는 판이었거든.<sup>122)</sup>

용맹하지도 못한 동시에 영리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본심도 아니면서 겉으로 복종이나 하는 용렬하고 나약한 지아비의 부류에 들고 만 것이었다.<sup>123)</sup>

식민지시대에 나타나는 지식인의 모습은 모두 유사하지만 해방이후 취하는 태도 곧 반성과 참여의 갈등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르다. 「해방 전후」에서는 식민지시대에 대한 반발과 청산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피하

---

120) 이태준, 앞의 책, 268쪽.

121) 김만선, 「귀국자」, 앞의 책, 175쪽.

122) 지하련, 앞의 책, 218쪽.

123) 채만식, 「민족의 죄인」, 앞의 책, 434쪽.

였다. 「도정」에서는 지식인이 자신의 소시민성을 인정하고 이와 싸워나갈 것을 역설한다. 「민족의 죄인」에서는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필요함과 동시에 참여를 통한 반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귀국자」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은 해방 이후에도 이전의 식민지시대의 반성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하여 끝내 참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 2. 좌우 이념 선택과 탈이념 모색

해방기의 정치성이 두드러지는 지식인소설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 「초료」, 「새벽」, 「지연기」, 「이합」, 「재회」, 「혈맥」은 해방기 지식인의 정치성이 형상화 된 소설들로 이데올로기 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갈등해소에 대한 작가적 대안 역시 제시하고 있다.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는 문학에는 정치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중립적 사상을 지닌 박교수가 어떻게 좌익적 성향을 가진 문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시선은 설득을 넘어 선동에 가까울 정도의 편향되고 과장되어있다. 작품에서 그려지는 우익 인물들은 폭력, 친일, 부당 이득, 방탕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반대로 좌익 인물들은 지혜롭고 유약, 청렴, 순수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박교수가 좌익 성향의 김교수와 학생 민우식과 함께 보내는 시골의 모습은 거의 환상적 이상향에 가깝게 묘사된다.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는 겉으로는 리얼리즘을 표방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과도한 좌익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통해 리얼리즘 미학에 동떨어진 작품이 되었다. 민우식에게는 ‘달려들어 입을 쪽 맞추’는 박교수가 그에게 문병 온 씬파 학생의 사과 바구니를 보기도 싫으니 치워달라고 말하는 모습은 소설 내에서 끊임없이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박교수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을

선악 대립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좌익 이데올로기 지식인들이 얼마만큼 우익 이데올로기 지식인들에게 반감을 가졌는지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뿐 심도 있는 해방기 현실에 대한 작가적 통찰과는 무관하게 여겨진다.

이는 작가적 굴절을 넘어서 왜곡에 가까운 것으로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에서 보여준 현실인식이란 작가가 가질만한 것이 아닌 선동가나 정치가가 가질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초료」 역시 어떤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없었던 지식인 주인공이 서정균과 서민달같은 부정적인 우익 인물들을 통하여 좌익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서정균과 서민달이 우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간파하고 오직 좌익 이데올로기만이 이러한 우익 모리배 인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중도적 혹은 무이념성에 가까운 지식인 인물이 해방기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과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인물들을 접하면서 작품 마지막에 이르러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게 되는 모습은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식인 모습이다. 이태준의 「해방 전후」의 현,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의 박교수, 「초료」의 ‘나’, 「새벽」의 현호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전홍준의 「새벽」은 무이념적 지식인이 모리배 지식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 좌익 이데올로기적 선택을 하게 되는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 「초료」의 기본 토대와 궤를 같이한다.

「새벽」은 특히 당시 좌익 이데올로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노동자에 대한 이상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준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현호는 파업을 강행하지만 오히려 해고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인쇄부의 김청년은 ‘동무들의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정파업’을 실시하고 현호의 투쟁은 승리하게 된다. 곧 기울어가는 파업을 승리로 이끈 건 지식인 현호가 아닌 노동자 김청년인 것이다. 이처럼 실천적이며 희생적인 노동자의 모습은 해방기 소설의 이상적 노동자 형상화이며, 혁명적 낭만주의를 수용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호는 단결의 힘의 위대함과 근로계급과, 무력한 인민이 살아 나갈 길은 오로지 이런 단결과 조직의 힘으로써 우리들을 착취하는 무리들과 싸워나가는 길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sup>124)</sup>

위와 같은 현호의 생각은 「초료」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기득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의 좌익 이데올로기 선택과 같은 것이다.

「지연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데올로기 지식인소설과는 반대로 좌익 이데올로기 지식인 인물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연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김선생이다. 그는 해방 이전에는 주인공 정후에게 황민 교육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갖기를 당부하고 해방 이후에 교내 비품 도난에 연류 되었다. 또한 해방육영회의 이사를 지내며 해방기를 이용해 사익을 챙겨온 인물이다. 김선생은 좌익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인물이라기보다 좌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비호하는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지연기」가 다른 좌익 지식인소설과 구별되는 점은 다른 이데올로기 소설들이 오직 한쪽 이데올로기만이 악용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과 다르게 「지연기」는 어떤 이데올로기라도 모리배 지식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객관적 인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후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저런 사람들이 좌익도 하고 우익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일 게라고도 정후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sup>125)</sup>

곧 「지연기」의 주제는 좌익 이데올로기 비판과 우익 이데올로기 옹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익이든 우익이든 해방기의 이데올로기 대립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거짓 지식인들을 폭로하는 것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혈맥」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통한 세대 간의 갈등이 부자간의 갈등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이필호 박사는 우익 지식인을

---

124) 김명선, 앞의 책, 361쪽.

125) 김동리, 앞의 책, 43쪽.



대표하는 인물이고 아들 이기호는 좌익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둘의 이데올로기 갈등은 부자 관계를 파탄 낼 정도로 극심해지는데 이는 해방기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세대 갈등에 대한 작가적 현실인식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혈맥」은 이필호 박사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어 부상당한 아들 이기호를 치료하러 나서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혈연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곧 당시 극심했던 지식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대하여 민족적 유대를 통한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염상섭의 「이합」과 「재회」는 이북과 이남을 모두 경험한 작가적 체험을 토대로 이북과 이남 사회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를 이루고 있다. 작품은 지식인 장한을 통하여 각각 사회의 문제점을 구체화시키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성을 넘어선 중립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합」은 해방 이북의 현실인식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가정에 대한 불만과 젊은 혈기 때문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아내 신숙을 통해 사상적 고민이 없는 정치운동을, 장한의 우익적 사고에 대하여 협박하는 주변의 인물들을 통하여 사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재회」에서 삼팔선을 넘어 온 장한은 이북에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남의 혼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고 결국 이북과 이남을 아우르는 중도적이며 새로운 ‘민족적 자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게 된다. 한 발로 ‘양감질 치는 생활’은 남북이 똑같으며 이북의 ‘무산독재세력’이나 미국의 ‘방임주의’는 균형 잡힌 정치 체계가 아닌 한 발로 걷는 일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방임주의란 민족자주를 위해 내버려두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도 아니거던요. 결국 막연한 민족분열에서 심각한 계급항쟁에 끌어 가기는 독재나 방임이나 같은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새로운 민족적 자각이 있어야만 될 텐데 어찌는 셈들인지?”<sup>126)</sup>

장한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에 갇힌 사고보다 두 이데올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제 3의 대안 모색이 시급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보다 ‘두발로 걸을 새로운 지도이념이 나올 것’을 주장한다.

이는 좌우익 선택만을 강요하는 해방기 현실에서 독재와 방임의 무차별성을 폭로하여 이 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치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현실인식으로 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려는 포용적인 현실인식 태도는 이북에서 버리고 온 아내 신숙과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좌우 이데올로기 통합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데올로기 소설들은 첨예했던 해방기 이데올로기 대립을 형상화 하였다는 점에서 모두들 유사한 현실인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 「초료」, 「새벽」, 「지연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작품들이 갖는 공통적 특징은 주변 등장인물에게 정치적 성향을 부여하여 옹호적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긍정적으로, 반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소설의 주된 현실인식의 내용은 해방기에서 나타나는 불합리, 빈곤 등의 사회적 문제들의 이면에 이데올로기를 악용하는 모리배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해방기 이데올로기 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이데올로기적 태도를 보이는 소설로는 「이합」, 「재회」, 「혈맥」이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무차별성을 강조하고 좌우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제3의 방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다. 부자와 부부간의 갈등과 화해의 모습을 통하여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족단위의 분열까지 침투함을 보여주며 이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민족적 화해를 전망하고 있다.

---

126) 염상섭, 「재회」, 앞의 책, 130-131쪽.

### 3. 이상적 해방에 대한 기대와 좌절

해방기는 해방을 맞은 당사자들에게 미래의 도래이자 이상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해방 후 냉혹한 현실에 부딪치자 이러한 기대는 점차 무너지게 된다. 해방 이전 꿈꿔왔던 해방기에 대한 기대와 해방 이후 현실과의 괴리를 통한 좌절, 분노는 당시 지식인이 체험한 현실인식의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였다. 어떤 시대라도 그 내부에 부정과 부패, 빈곤, 불합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해방기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시대를 통해 꾸준히 염원되었던 시기였기에 당시의 현실 문제가 더 비극적으로 느껴졌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자력이 아닌 타력으로 오게 된 해방기는 이미 그 시작부터 미·소 강대국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외부적 개입은 국가 내부의 분열에 불을 붙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된 대표적인 사회 현상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대립을 들 수 있다.

해방기는 국토는 양분되고 좌우익이 철저히 분열되어 대립하는 동안 자주적 통일 국가 건설의 꿈은 서서히 좌절되었던 시기였기에 리얼리즘을 표방했었던 해방기 소설에서 기대와 좌절의 모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좌절의 갈등은 일상성에 주목한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방기의 기대와 좌절은 지식인 주인공 개인적 심리 상태를 통하여 자주 반영되었고 이들의 일상적 활동을 통하여 형상화 되었다. 지금부터 기대와 좌절이 갈등하는 해방기 현실인식이 지식인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글 강습회」는 만주의 지식인이 해방의 감격을 통해 변화하였으나 해방기 불안한 만주 상황에 의하여 좌절하게 되는 과정이 다뤄지고 있다.

원식은 해방 이후 살림이 약탈당한 것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기울어가는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한글 강습회를 추진하는 등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 원식의 이런 모습은 해방에 대한 감격의 결과이다. 곧 해방 이후의 삶은 해방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자신의 개인

적인 안위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결국 원식은 해방을 통한 새 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해방의 비참한 현실- 곧 가족의 빈곤이나 불안한 사회, 모리배들의 득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그에게 친구 훈은 해방기 현실을 직시하기를 설득한다.

우리는 늘, 해방이 됐으니까 그 해방된 기쁨은 전에 못하던 별짓을 다 하게 한 것같이 믿어 오지만 실상 그 감격이라든가 기쁨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거든. 나 한 사람을 예로 들드래도 몇 번 목숨을 뺏길 뻔하다 살아났고 또 생활수단조차 잃고 보니 기쁘기는 커녕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기만 한 걸 어떡하나. <sup>127)</sup>

훈은 해방기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좌절이 형상화된 인물이다. 그는 원식에게 그가 한글 강습회가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해방기 사회가 ‘저마다 불안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원식은 훈의 말을 인정하며 해방의 감격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그는 결국 해방기 만주 사회의 혼란을 불의한 민간단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기대와 좌절의 중간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역사」에서 시골 지식인 청년 만오는 해방 이후 주변의 권고를 통하여 서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욕망을 느낀다. 이런 고민 중에 만오의 아버지는 그에게 ‘우리의 세상’이 된 지금 포부 있게 서울로 가서 자신을 시험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종용한다. 만오는 시골의 민중을 버리는 일이 허영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정치 생명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의 부추김에 못 이겨 서울로 가게 된다.

아버지와 만오가 느끼는 감정들은 해방기에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식인의 기대 심리의 모습이다.

보아라 글세, 해방이라 내 세상이라 하여, 하늘로 머리둔 사람은 제각

---

127) 김만선, 「한글 강습회」, 앞의 책, 140쪽.

기 한 뭇을 보겠노라, 서울로 달려드는 판이 아닌말이다.<sup>128)</sup>

그러나 해방 서울의 상황은 기대했던 것처럼 녹록하지 않은 않다. 만오는 바쁘게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려하지만 들어갔던 명함이 ‘도로 곱게’ 나오는 등 그는 어떤 정당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오는 해방기 서울의 현실을 체험하며 자신의 이전 기대와 다른 해방에 대한 좌절을 느낀다. 해방 서울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체험을 통한 좌절 과정은 김만선의 「귀국자」와 안수길의 「여수」에서도 나타나는 해방기의 현실 인식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서울에서 방황하던 어느 날 만오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민중의 중요함을 자각한다. 그는 시골로 돌아와 야학을 열고 새로운 민중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서울에서 느꼈던 좌절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평때저울」에서 그려지는 해방 사회의 분위기는 음울하다. ‘서울 장안에 버젓이 김장하고 과동하는 집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이 빈곤했고 소매치기에 대하여 ‘가까운 주위사람들도 모두들 이런 일은 한두번 안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며 ‘나’역시도 이번이 두 번째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치안 상태 또한 매우 불안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작가인 ‘나’는 이 같은 모습의 해방기 현실을 외면하는 행복한 결말의 소설 ‘동침이’를 창작하려하나 원고료가 소매치기 당하자 현실을 직시하는 불우한 결말을 쓰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토록 염원해 왔던 해방기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란 행복과 불행 중 불행을 자처하는 것이며 이러한 올바른 시각을 단념하는 것은 ‘나’의 아내가 말하는 ‘행복을 맞추는’ 일인 것이다. 소설 원고를 두고 벌어지는 ‘나’와 아내의 갈등은 어두운 해방기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이를 단념하고 포기하는 태도의 갈등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나’와 아내의 갈등에서 아내의 뜻에 따라 삭제된 원고를 넘겨주는 결말은 아내가 말하는 ‘단념의 덕’이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

---

128) 박노갑, 앞의 책, 32쪽.

나 독자에게는 ‘나’의 작가적 현실인식 태도가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방기 비참한 삶의 체험을 가감 없이 형상화 한 작품이 바로 「평때저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립은 당시 비판적 리얼리즘과 진보적 리얼리즘의 대립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당시 좌익 문학단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이식하는 진보적 리얼리즘을 소설 창작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박호영은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기본적인 태도”로 가지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개인의 자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큰 특징”<sup>129)</sup>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지식인이 가졌던 이상적인 해방기에 대한 기대와 맞아 떨어진다. 그런 연유로 혁명적 로맨티시즘은 리얼리즘과 그 근본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방기 대표적인 창작방법의 하나로 적극 수용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이 동시에 수용된 결과, 관조와 이성이 아닌 직관과 감성이 지배하게 되어 리얼리즘이라기보다 로맨티시즘에 가까운 소설들이 창작되었다.<sup>130)</sup> 「평때저울」은 해방기 혁명적 로맨티시즘으로 왜곡되었던 진보적 리얼리즘에서 비판적 리얼리즘으로의 회복에 대한 작가적 반성 축구의 결과물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안수길의 「여수」에서 지식인 박철은 해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를 격정하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귀국한다. 그러나 해방 정국의 상황은 철의 기대를 어그러지게 하였다. 함께 일하고자 했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 안남은 친구들도 정치적 노선으로 말미암아서로 대립하게 된 것이다. 철은 해방이전 가졌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 그러나 부산에서 만난 황숙을 통하여 생존과 생활의 대립과 이 둘의 수용을 경험하면서 해방 이후 자신이 느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해방 이전의 황숙은 주관이 없는 삶을 지향하는데, 이는 물질적 생존이 없고 정신적 생활만이 존재하는 현실 불가능의 관념공간에 해당한다. 그런

129) 박호영, 「일제강점기 혁명적 낭만주의 이입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8호, 한중인문학회, 2009, 19쪽.

130) 송기섭, 「해방기 리얼리즘 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71쪽.

데 이 같은 관념공간은 ‘쓰고 싶던 것을 쓰고, 말하고 싶던 것을 말하고, 친구와 더불어 하고 싶던 일을 맘껏 할 수’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를 했던 해방기의 모습과 유사하다. 곧 철이 기대한 해방기의 모습 역시 ‘생존’은 없고 ‘생활’만이 존재하는 관념적 공간에 불과한 것이다.

해방 이후 황도점의 죽음과 남편의 구금을 통해 황숙은 실제 현실과 맞부딪치게 된다. 빈대떡 장수를 하게 된 황숙은 결국 생존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황숙이 생존만을 추구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열한 삶에서 생존 뿐 아니라 생활도 있음을 깨닫는다. 결국 황숙의 변모는 생활에서 생존으로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생존 곧 생활력 속에서 진정한 정신적인 생활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어서 황숙은 아버지의 비호아래 있었던 이전의 삶, 곧 해방 이전 식민지시대의 삶과 해방기의 새로운 삶을 비교한다. 그는 생존과 생활이 분리되었던 식민지시대의 ‘불순’하고 ‘아름답지 못했던’ 삶이 청산되고 생존과 생활이 조화되는 ‘깨끗한 생활, 높은 생활, 충실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황숙의 깨달음은 해방기 기대와 좌절의 문제에 대한 작가적 극복 대안이다. 해방에 대한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기대의 좌절은 ‘충실한 생활을 붙잡지 못한 까닭’으로 생존을 배제한 정신적 생활에만 머무는 관념적 해방에 머물렀던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차원의 생존과 정신적 차원의 생활을 모두 인정하는 자세로 식민지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해방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여수」의 주된 작가적 해방기 현실인식의 내용인 것이다.

염상섭의 「양과자갑」은 지식인 영수를 통하여 해방기 지식인의 빈곤과 좌절을 미군정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인식하고 있다. 영수는 미국에 유학 경험이 있으며 영어로 소설과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준급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다. 영어를 통하여 성공의 기회가 많은 미군정의 해방기에 그는 자신의 영어가 벼슬을 얻고 통역을 하는 영어가 아니라면서 대학 시간강사일 외에는 어떤 일도 맡지 않는다. 영수의 아내는 셋집에서 언제 쫓겨날 지도 모르는 가난한 상황에 자신의 신념만을 지키는 영



수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국인 덕에 버젓한 적산가옥을 챙기는 김안라와 고가의 양가구를 선물 받는 안집 색시 같은 인물은 강직한 영수와 대비되는 친미 기회주의 인물로 영어에 능통한 영수에 비하여 간단한 영어 글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또한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이들이 미국인과 모종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리차드슨의 편지의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보배가 편지를 읽어준 덕에 받아온 양과자는 영수의 신념 때문에 고통 받는 그의 가족의 비참한 처지를 환기시키는 소설적 장치다. 양과자를 보며 안라와 안집 색시를 상종도 하지 말라는 영수에게 아내는 이렇게 만든 것은 당신의 탓이며 그런 처지가 되지 않게 하라고 맞선다. 이에 영수는 양과자를 들고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따진다.

“무어 어째, 이게 무언지나 알구 이야기요?……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나 알구서 말을 해요!”<sup>131)</sup>

양과자는 우리 민족이 친미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상징한다. 영수는 양과자로 상징되는 이득이 미군정에 대한 대가로 인식한다. 그렇기에 그는 양과자를 받는 것이 해방기 미군정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하며 거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수의 미군정에 대한 비판적인 해방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영수가 뛰어난 영어 실력을 그토록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방기 현실을 좌절시키는 미군정에 대한 그만의 저항인 것이다.

그러나 「양과자갑」은 단순히 해방 이후 신념을 지키는 지식인의 모습과 미군정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인물들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영수의 신념 때문에 빈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영수의 아내, 딸 보배의 비참한 생활도 동시에 그려진다. 곧 해방기에 신념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한 암울한 현실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

131) 염상섭, 「양과자갑」, 앞의 책, 335쪽.



것이다.

채만식의 「역로」는 암울하고 혼란한 해방기의 모습을 열거 하듯 보여주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도덕, 친일 지식인 처우문제, 농촌문제, 이데올로기 대립과 물가문제, 지식인들의 그릇된 사고와 왜곡된 현실 파악, 미군정에 대한 문제까지 「역로」는 한정된 분량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해방기의 문제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여기서 묘사되는 해방기 현실은 어떠한 극복대안도 없이 암울하기만 하다. ‘나’와 김군은 자신들의 객차에 조선인들을 내쫓는 미군을 보며 ‘한 정당의 두령 재목은 있어도 민족의 두령 재목은 아직’ 없다고 한탄한다. 비가 오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차를’ ‘음산한 정거장에서 민망히 기다려야’하는 두 지식인의 마지막 모습은 해방기 현실에 대한 막막한 현실인식의 투영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글 강습회」, 「역사」, 「평때저울」, 「여수」, 「양과자갑」, 「역로」는 해방기 지식인의 일상적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식인소설이다. 이들 소설에서 지식인이 체험하는 일상적 해방의 모습은 빈곤과 불합리, 좌절과 분노, 고통으로 얼룩져있다. 이는 해방 이전 기대했던 이상적인 해방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들 소설에서 나타나는 해방기 현실인식은 이전의 해방에 대한 기대가 좌절로 변모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지식인소설들은 해방기의 좌절이 끝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좌절로 수렴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좌절을 겪지만 끝내 희망을 지향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해방기 삶이 극복되지 못하고 좌절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소설로는 「한글 강습회」와 「양과자갑」, 「역로」로 볼 수 있다.

「한글 강습회」에서는 만주 한인 사회의 불안한 환경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연장되고 있으며 「양과자갑」에서는 미군정 아래 신념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지식인과 그의 가족들의 불행이 나타난다. 「역로」에서는 해방기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며 해방기 막막한 조선의 미래를 상징하는 우울한 모습의 기차역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수」와 「역사」, 「평때저울」에서는 해방기에 겪은 좌절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희망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여수」는 정신성을 대

변하는 생활과 물질성을 대변하는 생존의 조합할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역사」에서는 서울 중심의 정당 정치를 벗어나 민중들이 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될 것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다. 「평때저울」은 끝내 객관적 리얼리즘 시선을 버리지 않는 창작방법을 통하여 해방기 좌절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해방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을 지식인소설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방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소설 창작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선택의 자유를 가졌던 실험적 시기였다.

지식인소설은 이러한 해방기의 현실을 인식하여 형상화하는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난 소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거의 대부분 지식인 계층에 속하면서 해방기 지식인소설은 자기체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인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은 주인공 설정은 작가와 주인공의 현실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2장에서는 해방기 지식인소설을 역사성, 정치성, 일상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역사성이 두드러지는 소설들은 해방기와 식민지시대를 함께 형상화 하면서 해방기의 모습이 식민지시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설로 이태준 「해방 전후」, 지하련 「도정」, 채만식 「민족의 죄인」, 김만선 「귀국자」를 살펴보았다.

해방기의 정치성에 주목한 소설들은 당시의 이데올로기 대립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소설들의 주인공의 특징은 소설 초반부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갖고 있지 않다가 여러 사건을 경험한 후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해방기 지식인의 이데올로기 선택의 모습들을 그리는 소설로는 이근영 「탁류 속을 가는 박교수」, 김명선 「초료」, 전홍준 「새벽」, 김동리 「지연기」, 김영수 「혈맥」, 염상섭 「이합」, 「재회」가 있다.

해방기 지식인의 일상성에 주목한 작품들은 해방기 지식인의 일상적 차원의 활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정치성을 벗어나 해방기 지식인의 삶과 생존의 문제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빈곤한 지식인의 모습이 나타나며 주로 부정적인 모습의 해방기 사회를 형상화 하고 있다. 이에 해

당하는 소설로 안수길 「여수」, 허준 「평때저울」, 김만선 「한글 강습회」 박노갑 「역사」, 염상섭 「양과자갑」, 채만식 「역로」를 분석해 보았다.

3장은 2장에서 시도한 지식인소설의 해방기 형상화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작품들이 갖는 현실인식의 내용이 참여와 반성의 갈등,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 기대와 좌절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해방기 역사성에 주목한 소설들에서는 반성과 참여의 갈등이 두드러졌다. 여기서 반성은 식민지시대의 소극적 처세주의, 친일에 대한 자기비판이며 참여는 해방기 새나라 건설이라는 과업에 지식인으로서 일조하고 싶은 욕망의 산물이다. 반성과 참여의 갈등의 결과는 각각의 소설마다 다른데 「해방 전후」와 「도정」은 이에 대한 지식인 주인공의 적극적인 극복의지가 나타나며 「민족의 죄인」과 「귀국자」는 지식인 주인공이 끝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정치성이 나타나는 소설들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통해 해방기를 인식하고 있다. 이들 소설에서는 우호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반하는 이데올로기 인물을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해방기 소설이 비판적 리얼리즘의 객관성을 상실한 반면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진보적 리얼리즘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 와중에 「혈맥」과 「이합」, 「재회」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통한 갈등문제해결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 3의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식인 주인공의 일상성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에서는 이상적 해방에 대한 기대와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좌절 과정을 통한 갈등이 나타난다. 해방기에 느끼는 궁핍과 불합리에 대한 좌절의 모습은 대부분의 소설들이 유사하나 이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여수」, 「평때저울」, 「역사」는 해방기에 대한 좌절을 인지하면서도 끝내 희망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한글 강습회」, 「양과자갑」, 「역로」에서는 좌절의 모습이 끝내 해결되지 않고 연속된다.

해방기 지식인소설에서 나타나는 현실인식의 특징은 해방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작가적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현실 객관화의 노력과 함께 지식인으로서 해방기에 대한 변혁의 욕망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소설 내 지식인 주인공을 통한 형상화가 성공하였든 실패하였든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전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김동리 전집2』, 민음사, 1995  
『압록강』, 깊은샘, 1988  
『염상섭전집』 10권, 민음사, 1988  
『채만식 전집8』, 창작과 비평, 1989  
『한국소설의 얼굴-잔등 외』, 푸른사상, 2006  
『한국소설의 얼굴 별을 헨다 외』, 푸른사상, 2006  
『해방 3년의 소설문학』, 세계, 1987  
『해방공간의 문학 소설1,2』, 돌베개, 1988

### 2. 단행본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6  
———,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김육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정자, 『현대문학의 양가성』, 태학사, 1999  
김치수,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79  
송희복, 『해방기 문학 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안한상, 『해방기 소설의 현실인식과 구조연구』, 국학자료원, 199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 『현대 한국 소설사』, 민음사, 1997

이희승, 『국어사전』, 민중서림, 1982

정한숙, 『해방문단사』, 고려대 출판부, 1980

조남현,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 3. 논문

김동석, 「해방기 소설의 비판적 연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동환,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93

김성경, 「해방직후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89

김성렬, 「광복직후 좌우대립기의 문학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김승환, 「해방공간의 농민소설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0

김영진,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전주우석대 박사학위논문, 1993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지식인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방전 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 「한국소설의 미학적 기반(상·하)」, 『한국학보』, 2-3집, 1976

——, 「해방후 남북한의 문화운동」,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이태준론」,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김인경, 「1970년대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일수, 「해방기 소설의 자기비판성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김정자, 「문학의 양가성, 그 한눈팔기의 탈근대적 함의들」, 『현대문학과 양가성』, 태학사, 1990

박신현, 「안희남 소설연구」, 『문학과 언어』 10호, 1989

박재섭, 「해방기 소설 연구」, 서강대석사학위논문, 1986



- 박호영, 「일제강점기 혁명적 낭만주의 이입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8호, 한중인문학회, 2009,
- 송기섭, 「해방기 리얼리즘 소설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 신덕룡, 「해방직후 리얼리즘 소설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9
- , 「해방직후 노동소설의 현재와 전망」, 『폭풍』, 시인사, 1990
- 신재성, 「해방직후 노동소설과 인민성의 문제」, 『외국문학』, 1991
- 신종한, 「한국소설의 일상성」, 『동양학』 35호, 단국대동양학연구소, 2004
-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 , 「순수의 정체-해방기의 김동리」 『문학과 논리』 2호, 1992
- , 「노동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2』, 평민사, 1989
- 안상문, 「이기영 해방 이후 소설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2006
- 안한상, 「해방기소설의 현실인식과 형상화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1995
- 오현봉, 「한국현대소설의 사회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이병순, 「해방기 소설의 이념지향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5
- 이상재, 「해방기 지식인소설 연구」,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99
- 이우용, 「해방직후 소설의 인간상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 이정숙, 「해방기 소설에 나타난 귀환의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48호, 현대소설학회, 2011
- 이재명, 「채만식 소설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86
- 임현영, 「해방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해방전후사의 인식2』, 서울한길사, 1985
- 정원채, 「김만선 문학세계의 변모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3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 정진석, 「조선인텔리겐차론」, 『신천지』, 1946. 12,
-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 , 「해방공간의 소설과 지식인」, 『한국학보』 15호, 일지사, 1989
- , 「채만식의 허무주의와 역사담당 주체의 문제」,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 , 「해방직후 단편에 나타난 혼란상과 갈등상」,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 비평, 1988,
- 조정래, 「농민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 평민사, 1989
- 차희정, 「해방기 소설의 탈식민성 연구」, 아주대 박사학위논문, 2009
- 하정일 「해방기 민족문학론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한형구, 「해방공간에 있어서의 채만식의 현실인식과 글쓰기」,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 「해방공간의 농민문학」, 『해방공간의 민족문학 연구』, 열음사, 1989

#### 4. 국외 논저

- 게오르그 루카치 외, 이춘길 역, 『리얼리즘 미학의 기초이론』, 한길사, 1988
- 로버트 솔즈, 로버트 켈로그,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예림, 2001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영 역,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1
- 줄리아 크리스테바, 여홍상 역, 「말·대화, 그리고 소설」, 『바흐친과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마르크스·엥겔스 문학예술론』, 한울, 1988

페터 지마, 허창운-김태환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 허창운, 김태환 역, 『텍스트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1999



# ABSTRACT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Novel of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Kim, Sun Wook

Major in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search into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novel of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Liberalization period novel of intellectuals' refers to the novel that was created from the period of liberation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revealed the critical mind of the social problems through the protagonist who was an intellectual. In addition, 'perception of reality' is a result of an author's understanding of the real reality.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e reality that the author refracted what he/she conceived in the novel. So the novel of intellectuals can be seen as the type of novel in which the perception of reality on the liberalization period is well shown. It's because the intellectual protagonist is very closely related with the author who is the subject of the novel creation in that the novel of intellectuals is characteristic of self-experience embodiment.

In the body, Chapter II classifies the liberalization period novel of intellectuals from three perspectives and looks at the novelistic

embodiment of the liberalization period shown in the individual works. The three perspectives presented here are analytical methods to understand the liberalization period from historicity, politicity, and dailiness. The novelistic works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liberalization period in connection with the colonial period are classified as the novels of historical perspective; the works see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as the ideological conflict space as the novels of political perspective; and the works focusing on the daily lives of the intellectual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as the novels of day-to-day perspective.

In the body, Chapter III focuses on the conflict patterns that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type of novel classified in Chapter II is most promin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intellectuals and the conflict of reflection are shown in the novel of intellectual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right ideology is prominent in the novel of political perspective and some works reveal worries on the social integration methods going beyond the limits of ideology.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expectation of ideal liberation existed before the period of liberation and the frustration that they had experienced and felt themselves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in the novels of day-to-day perspective.

Such a process of perceiving the reality of the liberalization period through the intellectual protagonist's eye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complete the overall map of the perception of reality shown in the novels depict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Keywords: Liberalization period, perception of reality, novel of the intellectuals, historicity, politicity, dailiness, participation, reflection, ideology, expectation, frustration*